

페인
영이왕





페인 영어왕 되다!

선김 지음 | 김풍 그림



지은이 선킴

'들려야 말할 수 있다'라는 강의 철학을 가지고 '영어 청취 강의'만 고집해 왔으며, 콩트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그의 강의를 듣다보면 어느새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어 초보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시트콤과 미국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똑같이 성대모사하며 연기 수업처럼 이끌어 가는 것은 미국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한 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수업 방식.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Los Angeles를 거점으로 교포, 유학생,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친구를 둔 마당발이기 때문인지 그의 책에는 즐겁고 엽기 발랄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저서로는 발간 당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테디셀러 《술에 취한 영어》를 비롯하여, 《Try again! 중학교 교과서로 다시 시작하는 영어 발음·듣기》 등이 있다.

그린이 김풍

2002년 7월 김풍닷컴(<http://www.kimpoong.net>)에 《페인의 세계》 시리즈가 연재되면서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 이후 CJ엔터테인먼트에서 만화가 겸 영화 기자로 근무했고, 다음미디어와 버디버디에 만화를 연재했다.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 CF모델로도 활동했으며 《KBS 개그사냥》 등 TV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 지금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 사람들을 웃기는 일이 무작정 즐거워서 언제나 개인기를 갈고 닦는 그는, 앞으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 현재 웹툰 《페인의 세계》, 《페인 가족》, 《럭키곰스타》를 연재하고 있고, CF출연, 연극, 콘텐츠 기획 등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살인적인 스케줄을 즐기며 페인(?)같지 않은 페인 생활을 하고 있다.



페인, 영어왕 되다

초판 1쇄 인쇄 · 2005년 12월 15일

발행 · 2005년 12월 26일

지은이 · 선킴, 김풍

발행인 · 김경숙

편집장 · 이지연

발행처 · 길벗 이지톡

출판사 등록일 · 2000년 4월 14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0-15

대표 전화 · 02)338-3243 / 팩스 · 02)338-0221

홈페이지 · www.gilbut.co.kr / 이메일 · eztok@gilbut.co.kr

책임 편집 · 박민혜(fetters@gilbut.co.kr) / 기획 · 김보희, 김대훈, 전윤희, 이규선

디자인 · 이근공, 문선희, 이도경 / 제작 · 이준호 / 마케팅 · 김태영, 김영삼, 박성용, 유보영, 김영자

경영지원 · 이승욱, 김향은 / 독자 관리 및 A/S · 강원진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이준엽 / 교정교열 · 전명희 / 전산편집 · 조지연

필름출력 · 교보P&B / 인쇄 · 현문인쇄 / 제본 · 경문제책

- 책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길벗 이지톡 홈페이지(www.gilbut.co.kr)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잘못된 책은 구입한 서점에서 바꿔 드립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지은이 선킴, 김풍과 길벗 이지톡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ISBN 89-90279-62-3 03740

이 땅의 모든 페인들을 위하여...

이 책은 남들처럼 영어는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페인들, 남들처럼 영어 시간만 되면 '수동태가 어찌구', '관계대명사가 어찌구' 하면서 유식하게 떠들고 싶은데 '동사' 하면 '얼어 죽는 것' 밖에 모르는 페인들, 영어학원에는 다니고

싶은데 기초반에서조차 버벅거리는 게 쪽팔려서 포기한 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 문법이 영어 교육을 망친다?

'영어' 하면 '문법'이란 공식이 통용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이 시작된 이후 계속 되어온 진실이다. 최근 들어 이런 고리타분한 영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소위 문법을 탈피한 영어 교육이 유행을 타고 있다. 그 유행이 얼마나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지 '문법을 중시하면 영어 교육을 망친다.'는 논리로까지 비약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말에서도 문법은 그 언어의 뼈대이다. 문법은 말 그대로 '말을 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이 없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법에 왜 그리 반감을 가지게 되었나?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문법이 라고는 '문법을 위한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 '수학공식과 같은 문법'이었기 때문이다.



▶▶▶ feel(뻔) 받은 페인 뽀수의 엽기 발랄 영문법 정복기

그래서 이 책에는,

1.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쯤은 봤을 《성×종합영어》의 기본은 모두 넣었다.
2.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실용문법을 다루었다.
3. 《술에 취한 영어》 선킴의 엽기 발랄한 예문들과 5년여 강의 노하우로 훨씬 쉽게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4. 《페인 가족》 김풍의 주인공 뽀수의 활약으로 영문법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어둠의 페인들이여!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세계로 나와 영문법을 완전 정복해 보자!!!

2005년 겨울 선킴



오, 《페인, 영어왕 되다》인가?



페인을 위해 만들어져 다르다!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책이 너무 두껍고 어렵다? 이 책은 회화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법만 골라 놓아, 쉽게 알맹이만 골라 배울 수 있다. 《술에 취한 영어》의 저자 선킴 선생님의 엽기 발랄한 예문으로, 읽다보면 영문법의 맥이 잡힌다.



정말 페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항상 영문법 책에는 모범생만 나와 재미가 없었다고? 책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페인 가족》의 대표 페인 뽀수의 얘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영어에 자신이 생긴다.



진정한 페인의 책이다!

영문법 책은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다고? 엽기 발랄한 선킴 선생님의 입담과 페인 뽀수의 황당한 얘기로 소설책처럼 술술 읽혀 끝까지 볼 수 있다.



페인을 위한 영어 게임 CD

게임을 통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영어와의 벽을 깨 보자. 신나게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영어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Simple Word

몸 풀기 게임으로, 제시된 단어의 철자를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 박스에서 찾아 차례대로 클릭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자.

Breakfast Detective

왼쪽에 제시된 영어문장을 읽고 알맞은 아침식사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가지고 오는 게임이다. 아침에는 되도록 하지 말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로 인해 과식할 수도 있다.

Word Drop

글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맞는 단어로 조합하는 게임이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틀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자꾸 도전해 보자.

다봉이의 보충수업

책을 통해 배운, 혹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법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문제가 틀리면 선생님께 분필을 맞게 되니 조심하도록.



내 문법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영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약한 부분을 알고 나면 영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 문제를 읽고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1. When Jenny called _____ an alcoholic, I killed _____.
a. mine, her
b. my, hers
c. me, her
d. me, she
2. Sun Kim was born _____ July, 10th, 1971.
a. in
b. at
c. on
d. under
3. The news was so _____. I was _____.
a. shocked, shocked
b. shocking, shock
c. shocked, shocking
d. shocking, shocked
4.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a. Give me.
b. Give a glass of beer.
c. Give me that.
5. 다음 중 틀린 문장은?
a. Steve is absolutely.
b. Steve is young.
c. Steve is very stupid.
d. Steve has a big head.





6. 다음 중 틀린 것은?
a. James is stupid handsome.
b. I need something new.
c. This is an interesting story.
d. This book is absolutely nice.
7. Kim Poong is a man _____ is the world's best cartoonist.
a. when
b. where
c. why
d. that
8. I dumped Jenny.를 수동태로 바꾸면?
a. I was dumped by Jenny.
b. Jenny dumped me.
c. Jenny was dumped by me.
9. 다음 중 틀린 문장은?
a. I am picking my nose everyday.
b. I have a drink every weekend.
c. Do you sometimes come here?
d. I love you so much.
10. 다음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은 용법은?
To drink is the goal of my life.
a. Do you have something to read?
b. I came here to kill you.
c. To study English is so painful.
11. '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영작하세요.
a. I love you.
b. You might survive.
c. You can live.
d. You must survive.



12.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은?
If I had money, I would buy this.
a. I have money now. So, I can buy this.
b. I will make money to buy this.
c. I don't have money. So, I can't buy this.
d. I used to have money to buy this.
13. 다음 중 '동명사' 를 적절히 설명해놓은 것은?
a. 경주에 있는 사찰 이름
b. 이름이 같은(同名품) 품사
c.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
d. 동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
14. 다음 중 관사가 꾸며주는 것은?
a. 명사
b. 형용사
c. 부사
d. 장의사
15. 다음 중 틀린 문장은?
a. I am the best!
b. I am taller than you.
c. Who is the tallest person here?
d. Steve is more intelligent than James.



정답

틀린 문제는 정답 옆에 있는 유닛을 찾아 읽어본 다음 다시 풀어 보자. 자신이 어떤 문법을 어떻게 모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c(Unit 6, 대명사) 2. on(Unit 22, 전치사) 3. d(Unit 9, 분사) 4. c(Unit 2, 문장의 5형식)
5. a(Unit 12, 부사) 6. a(Unit 7, 형용사) 7. d(Unit 25, 관계대명사) 8. c(Unit 20, 수동태)
9. a(Unit 15, 기본시제) 10. c(Unit 19, to부정사) 11. b(Unit 14, 조동사) 12. c(Unit 21, 가정법)
13. c(Unit 15, 동명사) 14. a(Unit 8, 관사) 15. a(Unit 10, 형용사의 비교)



점수별 진단 및 대책

아래 간략하게 문법 수준에 따른 진단 및 학습 방법을 써 놓았다. 15문제로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습방법으로 좀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길 바란다.

15문제



“이 책,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 수준에 안 맞아.”

너무 쉽다고?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게 마련이다. 영어 좀 한다고 재지 말고 좀더 노력해서 원어민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 보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설책을 읽는다 생각하고 재미삼아 보면서 영문법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11~14문제



“내가 잉글리시 좀 하지.”

실수로 틀린 거라고? 다시 풀면 다 풀 수 있다고? 시험에서 실수란 없다. 헛갈리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틀린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 옆에 해당 문제가 어떤 문법 부분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아 꼼꼼히 읽어 보자. 자신이 헛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 확실하게 정리해 두자.

6~10문제



“옛날에는 나도 영어 꽤나 좋아했었는데.”

학창시절에는 영어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영어와 멀어져 버린 당신. 갑자기 어려운 시험 영어로 영어와 멀어지기는 했지만 영어와 다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영어책 같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한 번만 읽어도 영문법의 맥이 잡힌다. 그런 다음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문법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 본다. 그렇게 두 번만 읽으면 영어의 기본이 확실히 잡힌다.

5문제 이하



“잉글리시가 모야?”

어려서부터 영어와 담을 쌓았던 당신. 우선 <폐인을 위한 영어 게임 CD>로 영어와 친해지자. 그런 다음 이 책을 한 페이지라도 자주 펴 보라. 자주 보면 저절로 영어가 좋아질 것이다. 왜? 영어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엽기 발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영어에 재미를 붙이고 나면 처음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읽어 영문법의 맥을 잡으면 끝!



Part 1 영어문장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 Unit 1 문장의 구성
주어와 동사만 알면 절반은 성공! 16
- Unit 2 문장의 5형식
5형식 그거 꼭 알아야 돼? 누가 만든 거야, 이거? 20
- Unit 3 8품사
영어는 8원소로 이루어졌다 29
- Unit 4 구 vs. 절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행동한다 40



Part 2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따로 있다!

- Unit 5 명사
영어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는 알아 두자고! 48
- Unit 6 대명사
우리들의 전망증을 위해 태어난 ‘거시기’ 54
- Unit 7 형용사
노메이크업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명사 전용 화장품 59
- Unit 8 관사
명사의 필수 휴대품
- ‘대머리’ 명사에는 관사 ‘모자’가 제격이다 64



- Unit 9 분사
동사를 형용사로 변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 분사 69
- Unit 10 형용사의 비교급
세상이 불공평한 건 형용사의 비교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76



Part 3 동사를 알면 영어의 절반이 해결된다!

- Unit 11 동사
주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내 이름은 동사 88
- Unit 12 부사
동작을 더욱 섬세하고 맛깔스럽게 96
- Unit 13 의문과 부정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하는 문법? 100
- Unit 14 조동사
동사의 느낌을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동사의 '시다바리', 조동사 106
- Unit 15 기본시제
현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117
- Unit 16 진행시제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땐 -ing를 기억하라! 125
- Unit 17 완료시제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시제의 다리 131
- Unit 18 동명사
명사가 되어 버린 변절자 동사 141
- Unit 19 to부정사
뭐든 되어 주는 친절한 to부정사씨 147

- Unit 20 수동태
항상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수동태 153
- Unit 21 가정법
고통스런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아편, 가정법 161



Part 4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자!

- Unit 22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170
- Unit 23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원하는 장소에 가려면 전치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175
- Unit 24 접속사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엮는 영어계의 중매쟁이! 186
- Unit 25 관계사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 192





Part 1

영어문장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Unit 1. 문장의 구성

Unit 2. 문장의 5형식

Unit 3. 8품사

Unit 4. 구 vs. 절



주어와 동사만 알면 절반은 성공!!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

영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영어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둠의 자식'들이여, 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아마도 문장일 것이다. 어느 누구고 문장을 만들라고 하면 그냥 맥이 빠져 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이 문장이란 놈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소주 한 잔을 다섯 번 꺾어 마시는 것보다도 더 쉽다는 말씀! 영어

문장에서는 주
인공이 되는
주어와 주인공의
동작이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동사만 있으면 게임 끝이다.



예를 들어 I go.라는 지극히 간단한 말도 완전한 문장이다. <나=I>라는 주어, 그리고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go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문장은 이 기본 틀에서부터 출발한다. 제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결국 영어문장의 기본은 <주어+동사>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문법 외계어들, 즉 보어, 목적어, 관계대명사절 등, 듣기만 해도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어려운 문법단어들은 이 <주어+동사> 구조에 뜻을 좀 더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꼭 기억하자!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

I go.

나는 간다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



Time flies! 세월 정말 빠르다!

Sun Kim rules! 선킴 정말 짱이야!

Steve laughs. 스티브는 웃는다.

You suck! 너 정말 재수 없애!

President Bush died. 부시 대통령은 죽었다.



쉽게 말하고 싶다면 주어와 동사에 색을 붙여라!

이제 <주어+동사>로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 덕지덕지 군살을 붙여야 할 시간이 오고야 말았다. 매일 '난 바보다.', '너는 못났

다.’ 식의 간단한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주어에 덕지덕지 장식하는 말을 **주어 부분**이라고 하고, 동사에 덕지덕지 장식하는 말을 **서술어 부분**이라고 한다.



‘선킴이 밥을 먹었다.’란 문장을 ‘민족의 태양이시고 위대한 영어선생이신 선킴 선생님께서 밥을 겁나게 맛있게 드셨다.’로 늘여 보자. 결국은 ‘선킴 선생님’이란 주어를 말하고자 하는데 앞에 ‘민족의 태양 어찌고...’란 각종 장식이 붙은 것이다. 또한 ‘밥 먹었다’란 동사 부분에도 ‘밥을 겁나게 어찌고...’라는 살이 붙은 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위대한 영어선생이신 선킴

← 주어 부분 →

선생님께서 밥을 겁나게 맛있게 드셨다.

→ 서술어 부분 →

‘~은/는/이/가/께서’가 붙는 부분까지가 주어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에서 어디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서술어 부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게 우리말로 ‘~은/는/

이/가/께서(존댓말의 경우)’가 붙는 부분까지를 **주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떨거지들이 **서술어 부분**이며, 그 **서술어 부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사**인 것이다. 따라서 문장이 너무 길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사를 찾아 그 앞에서 끊어 준다. 대개 **동사 앞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동사부터 서술어 부분**인데,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이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My uncle who drinks like a fish

← 말술을 퍼마시는 우리 삼촌이(주어 부분) →

got liver cancer.

← 간암에 걸렸다(서술어 부분) →

동사 앞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동사부터 서술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My stupid puppy doesn't recognize me.

내 멍청한 개는(주어 부분) 날 못 알아봐.(서술어 부분)

Peeing on the street is full of fun.

노상방뇨하는 것은(주어 부분) 너무 흥미진진해.(서술어 부분)



이것만은 꼭 ~
알아 두셈!!



1.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
2.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동사를 찾아 끊어 주면 쉽게 해석할 수 있다.
보통 동사 앞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동사부터는 서술어 부분이다.



5형식 그거 꼭 알아야 돼?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자. 문장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바로 주어이고, 동사는 그 문장을 움직이는 ‘문장의 엔진’이라고 말이다. 이 ‘엔진’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문장은 총 다섯 가지 모양으로 변한다. 주로 다섯 가지로 변하다 보니 문법학자들이 여기에 이름도 살짝 붙여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5형식**이다.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을 보충하는 말’이란 뜻의 **보어**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란 뜻의 **목적어**라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사의 옵션들에 의해 문장이 총 다섯 가지로 변하는 것이다. 기억할 것!! 아무리 복잡한 문장, 하버드 대학 박사졸업논문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단 두 단어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 문장은 1형식

1형식은 영어문장 중 가장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괜히 1형식이 맨 처음에 나오겠나? 단 두 단어, <주어+동사>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문장이 바로 **1형식**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말로 ‘나는 최고다!(I rock!)’, ‘세월 빠르다.(Time flies.)’, ‘엣 같은 일은 일어난다.(Shit happens.)’와 같이 <주어+동사>만의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 1형식이다.

You suck!

넌(주어) 엣 같다!(동사)

주어와 동사로 만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문장이 바로 1형식! 이거 틀리면 바보!



You die. 너는 죽어.

Steve urinates. 스티브는 오줌 똥다.

You win. 네가 이겼다.

Sun Kim rocks! 선킴이 최고다!



▶ 1형식으로 나누는 대화



‘누구는 어떨다’고 주어를 설명해 주는 문장은 2형식

이번엔 영어문장 형태 중 두 번째로 간단한 문장이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인데 혹시 본 적이 있는가? I am handsome.(난 잘생겼어.),



You are ugly. (넌 못생겼지.) 같은 좋은 문장. 이 문장에서 뭐 느끼는 것 없나? 동사 바로 뒤에 있는 handsome과 ugly가 앞의 주어인 I와 You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누구는 어떻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공식으로 한번 그려 볼까?

I = handsome

You = ugly

이렇게 앞의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handsome이나 ugly 같은 것을 **주격보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여간 이렇게 '누구는 무엇이다', '누구는 어떻다'로 해석되는 문장이 바로 **2형식 문장**이란 것만 알아 두자. 어렵다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자. '너는 바보다.(You are stupid.)', '선킴은 똑똑하다.(Sun Kim is smart.)', '철수는 풀아이다.(Chul-Su is dull.)' 같은 문장이 다 2형식이라고!!

I am handsome!

난(주어) 이다(동사) 미남(주격보어)

'난 라복이야.', '난 잘생겼지.' 같은 문장이 2형식이라! 자기 소개를 할 때 많이 쓰게끔.



You are so fat. 넌 너무 뚱뚱해.

My father used to be gay. 우리 아빠, 예전엔 게이였다.

Sun Kim is an alcoholic. 선킴은 알코올 중독자야.

This tastes shitty! 이거 정말 맛이 엇 같대!



▶ '난 멋있다.'고 뽐내는 순간 2형식 문장을 쓴 것



해석했을 때 '~을/를'이 나오는 문장은 3형식

I dumped my girlfriend! 라는 말을 해석해 보자. '솔로부대'들에겐 꿈만 같은 이야기, 즉 '난 내 여자친구를 차버렸어.'란 뜻이다. 왜 이런 꿈같은 비현실적 문장을 끄집어냈느냐 하면, 바로 동사 중에서도 '행동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동사, 그게 뭐냐고? **타동사**란 바로 '살인을 한다' (누구를?), '먹는다' (뭐를?) 같이 '**행동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라는 말이다. 여기서 dump는 타동사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고? dump는 행동의 대상, 즉 누구를 차버린 것인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따라서 목적어는 주어와 상관없이 동사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말로 '**~을/를**'이라는 조사가 붙는 '행동의 대상', 즉 목적어를 꼭 가져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붙은 문장**을 **3형식**이라고 한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엄청 싫어해.' 같은 문장들이 모두 3형식인 것이다! 기억하자!! I love you. 는 3형식이다!!!



I dumped my girlfriend!

난(주어) 차버렸다(동사)

내 여자친구를(목적어)

'~을/를'이 붙으면 무조건 3형식 문장이다!



I ate your puppy. 내가 네 강아지를 먹어 버렸어.

My mom loves your daddy. 우리 엄마 너네 아빠를 사랑하셔.

I will eat you alive! 난 너를 산 채로 잡아먹을 거야!

My girlfriend slapped my face. 내 여친이 내 귀싸대기를 날리더라고.



목적어를 두개나 가지는 욕심쟁이 문장은 4형식

자, 그대가 미국 술집에 가서 You give me some beer!란 말을 흘
륭하게 했다면 4형식 문장도 동시에 마스터한 것이다. 술집에 가서
Give me!라고만 얘기하면 그 썰렁함에 여러분도 웃고
종업원도 웃을 것이다. '주시오!'
라니? 도대체 뭘 달라는 거지?
그렇다고 Give some beer.라
고 해도 안타까운 영어는 계속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맥
주 주시오.'라는 문제없는 말이
되지만 영어에선 '누구에게'란
말도 꼭 해 줘야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즉, You give me



some beer.(당신 나에게 맥주를 좀 주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
영화에서 Give me some beer.라고 하는 말 자주 들었지? 이 말은
You가 생략된 것이다.

조사 '~을/를'이 붙는 것이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some beer가 목적
어인 건 알겠는데 그럼 '나에게'란 뜻의 me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진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보조목적어다. 문법용어로 이런 보조목
적어를 간접목적어라고 부른다.

4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욕심쟁이 문장으로, <타동사+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순서로 나가는데 주로 '누구에게 무엇
을 하다'로 해석하면 된다. 꼭 기억할 것은 영어에서 우리말의 조사
'~에게/한테'가 붙는 말도 목적어라는 사실!!

You give me some beer!

넌(주어) 주라(동사) 나에게 (간접목적어) 맥주를(직접목적어)

동사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두 가지가 오면 무조건 4형식 문장이다!!!



Don't give me that crap!!

그딴 헛소리 집어치워!!(나에게 그런 헛소리를 주지 마.)

Some guy sends me roses everyday.

어떤 자식이 매일 나한테 장미를 보내.

(You) Show me your naked body!

나에게 너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 주오!



▶ 어떤 사람은 TV를 보며 4형식
문장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I killed him and his father.(난 그와 그의 아버지를 죽였지.) 같은 문장은 3형식인가요, 4형식인가요?



어떤 삼순이 같은 사람들은 I killed him and his father. 같은 문장에서 him과 his father,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왔으니 4형식이라고 우긴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and로 연결된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자. 즉, I killed (him and his father).에서 ()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이므로 3형식 문장이다. 4형식은 반드시 '누구에게/누구한테'라는 간접목적어가 나와야 한다. 오케이?



'무엇을 어떻게 하다'로 해석되는 문장은 무조건 5형식

자, Alcohol makes you stupid.라는 문장을 보자. '술은 너를 바보로 만든다.' 정말 가슴 아프지만 말 되는 얘기다.

'너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3형식이나 4형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stupid를 빼면 말이 안 되니 3형식은 아니겠지? 그럼 4형식? you와 stupid가 같은 것으로 봐서는 4형식도 아니다. 4형식은 동사 뒤에 두 단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다'로 다른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의미인 문장을 5형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stupid는 앞에 있는 목적어 you를 보충설명(보어)하는 말로 '목적보어'라고 한다. '누구를 어떻게 하다'에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목적보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엇을 어떻게 하다'로 해석되면 모두 5형식이다.

Alcohol makes you stupid.

술은(주어) 만든다(동사) 너를(목적어) 바보로(목적보어)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면 무조건 5형식!!!



Alcohol makes me high. 술 마시면 난 정말 황홀해져. (me=high)

Steve called me an asshole. 스티브가 날 개새끼라고 불렀어. (me=an asshole)

We call Smith "the Big Head."

우리는 스미스를 대갈장군이라고 부른다. (Smith=the Big Head)

I consider you a son of a bitch.

난 널 개새끼로 생각해. (you=a son of a bitch)

Honey, I can feel your body shake.

자기, 당신 몸이 살포시 떨리는 것이 느껴져. (your body=shake)



Alcohol makes me high.
술 마시면 난 정말 황홀해져.

▶ 난 5형식으로 취하곤 한다.



My mother made me a teacher.라는 문장과 My mother sent me some money.라는 문장에서 어떤 것이 4형식 문장이고, 어떤 것이 5형식 문장인지 헷갈려요.



아주 좋은 질문!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영문법의 '무한한 복잡함'을 느끼고 끝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알고 보면 의외로 쉽다. 이런 경우 동사 뒤에 목적어처럼 생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라.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봐서 같은 말이면 5형식, 전혀 다른 말이면 4형식이 되는 것이다. 어때? 쉽지 않나? My mother made me a teacher.(우리 어머니는 나를 선생님이로 만드셨지.)의 경우 me와 teacher는 같은 말이다. 그러나 My mother sent me some money.(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좀 보내셨어.)의 경우 me가 some money는 아니다. 즉 My mother made me a teacher.는 5형식, My mother sent me some money.는 4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1형식 :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초간단 문장.

〈주어+동사〉

You win. 네가 이겼다.

2형식 : '누구는 어떻게'라고 해석되는 문장.

〈주어+동사+주격보어〉

I am handsome. 난 잘생겼다.

3형식 : '누구는 무엇을 한다'라고 해석되는 문장.

〈주어+동사+목적어〉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4형식 : 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나 가지는 욕심쟁이 문장.

〈주어+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You) Give me some beer. 당신 나에게 맥주를 좀 주시오.

5형식 : '무엇을 어떻게 하다'로 해석되는 문장.

〈주어+동사+목적어+목적보어〉

Alcohol makes me high. 술 마시면 난 정말 황홀해져.

Unit 3. 8품사

영어는 8원소로 이루어졌다



문장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각 단어들이 그 문장에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들이 각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크게 여덟 가지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8품사**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몸 덩어리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몸 안에 있는 간, 위, 대장과 같은 신체기관들이 바로 품사들이란 말이다. 배 밖으로 나와 있으면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사람의 몸이란 '하나의 개체'를 제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품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단어 하나로 있으면 별볼일없는 낱말일 뿐이지만 문장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품사'라는 역할을 수행해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자, 이제 단어가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역할, 즉 8품사를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아 볼까?

Some guy sends me roses everyday.

어떤(형용사) 누가(명사) 보낸다(동사) 나에게 장미를(명사) 매일(부사)
(대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가 바로 8품사!



명사-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명사란 간단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말한다. 잠시 책을 덮고
주위를 둘러보자. 방 안을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끝없는 면식생활의
동반자인 라면들, 흐릿한 동영상 파일이 200기가가 넘는 나의 벅 컴
퓨터 등 세상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바로 명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 '소주병'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이
름도 명사지만, 카드연체 때문에 오는 '근심'이나 '걱정', 술독에서 오
는 '고통', 가끔 공술을 마시면 찾아오는 '행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도 명사에 포함된다는 사실! 즉, computer(컴퓨터),
Soju bottle(소주병), noodle(라면) 등도 명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anxiety(근심), pain(고통), happiness(행복) 등도 명사이다.

우리는 이들을 인터넷 페인이라고 부른다.



▶ 나를 둘러싼 모든 것 - 명사

Look at those empty Soju bottles on the computer.

저기 컴퓨터 위에 빈 소주병들 좀 봐.

Whenever I see your ugly face, it causes me pain.

너의 욕떨에 같은 면상을 볼 때마다, 나는 큰 고통을 느껴.



대명사-있잖아, '거시기'

대명사는 순전히 우리들의 '건망증'과 '귀차니즘' 때문에 만들어졌다.
간단히 말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란 얘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
자. 어젯밤 술집에서 분명히 술이 떡이 되도록 같이 마시면서 '실내
포차 의형제'의 연까지 맺고 별의별 쇼를 다 한 인간이 있는데, 그 다
음날 막상 그 친구를 보니까 의형제 결의고 나발이고 이름조차 기억
이 안 난다. 그때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 그 친구의 이름 대신 '거시
기', '그 인간'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대명사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 가령 Steve란 이름 대신 쓰는 he, the beautiful girl 대신에 쓰는 she, 이름을 모를 때 쓰는 that(저거), this(이거) 등이 바로 대명사란 말이다. 대명사는 절대 '큰(大) 명사'가 아니다. 명사를 대신해 주는 녀석임을 잊지 말자.



▶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땐, 대명사

Here comes Steve. **He** is an asshole.

저기 스티브 온다. 저놈은 정말 XX놈이야. (Steve=He)

This tastes good. What is **this**? 이거 맛있다. 이거 뭐니?



관사 - 명사 앞에 조용히 오는 그것

관사에는 a/an 그리고 the가 있다. 자, 그럼 관사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걸까? 관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만 온다!!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면 a/an은 '막연한 하나'를 뜻하고, the는 '바로 그'에 해당하는 확실한 무엇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나 여기 오다가 차에 치었어. 그런데 그 차에 선킴이 타고 있지 뭐야.'라는 문장에서 앞의 car에는 a가 온다. 왜? '막연한 차 한 대'니까. 그리고 뒤의 '그 차'에는 the가 와서 the car가 된다. 왜? 선킴이 타고 있던 바로 '그' 차이기 때문. 따라서 영어로 옮겨 보면 예문과 같이 된다.



▶ 막연한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관사만 보면 안다

I was hit by a car on the way here. **The** car was driven by Sun Kim.

나 여기 오다가 차에 치었어. 그런데 그 차에 선킴이 타고 있지 뭐야.

I saw a naked man on the street. **The** man was Sun Kim!!

길거리에서 벌거벗은 한 남자를 봤어. 그 남자는 바로 선킴이었어!!



동사 - 문장을 움직이는 엔진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있다'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동작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만히 있다'라는 동작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동작'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가 움

직이는 모습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사다.

다른 품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장에서 동사가 빠지면 웃기는 짤뽕이 되어 버린다. '학교 종이...' 학교 종이 뭘! '어서...' 어서 뭘! '선생님이 우리를...' 우리를 뭘! 여기서 '...' 부분이 바로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렇게 동사가 빠지면 이상한 미완성 문장이 되는 것이다.

자, 동사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간단히 말해서 무언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를 보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kill(죽이다), throw up(게우다), eat(먹다), love(사랑하다), cry(울다), die(죽다) 같은 것들이 동사란 말이다.

Oppa! Step on it! 오빠! 달려!
If you don't love me, I will kill you.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형용사 - 명사를 꾸며 주는 명사 전용 화장품

man은 무슨 품사인가? 뭐? 모른다고? 이런 발칙한 시츄에이션!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남자'는 명사다. 자, 그러나 남자라고 다 같은 남자가 아니란 사실. 남자 중 다니엘 헤니 또는 선킴 같이 잘생긴 남자도 있는 반면, 영구나 옥동자처럼 비주얼이 조금 딸리는 남자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남자들을 그냥 man으로만 설명

하기에 세상은 각양각색의 남자들 천지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

형용사는 간단하게 '명사를 꾸며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man이라고 다 같은 man이 아니라 handsome man도 있고, ugly man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 man을 꾸며 주는 handsome과 ugly를 말한다.



A: Who is that handsome man? 저기 저 잘생긴 남자는 누구신가요?

B: That handsome man is Sun Kim. He is also very smart.

저 잘생긴 남자는 선킴이야. 똑똑하기까지 하지.

부사 - 동작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

'나 잡아봐라~' 같은 눈꼴시런 뽀박질이나 술래잡기를 할 때 뛰는 것, 뒤에서 갑자기 사자가 달려올 때 목숨 걸고 달리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동작의 정도'를 보여 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다.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에도 ‘천천히’ 뛰다, ‘빨리’ 뛰다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천히’, ‘빨리’ 이런 말들이 다 부사인 것이다.

부사는 주로 동사를 꾸며 주거나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형용사나 부사 역시 꾸밀 수 있다. 예를 들어 ‘빨리 달리다’에서 ‘빨리’는 ‘달리다’란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다. 그럼 ‘얼라 빨리 달리다’에서 ‘얼라’는? 그렇다! 그 뒤의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 주는 또 다른 부사인 것이다!

열라 빨리 달리다.

부사 부사 동사

이렇게 동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 주는 말이 부사!



이번에는 좀 다른 문장을 볼까? ‘예쁜 영희’에서 ‘예쁜’은 뒤의 ‘영희’란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다. 그럼 ‘엄청 예쁜 영희’에서 ‘엄청’은? 그렇다!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인 것이다!



▶ 이때의 ‘빨리(fast)’가 부사이다.

Sun Kim runs **fast**. 선킴은 빨리 달려.

Sun Kim runs **so fast**. 선킴은 열라 빨리 달려.

Kim Poong is **very, very** handsome. 김퐁은 진짜 짱 잘생겼어.



전치사 - 명사 앞에서 위치, 방향, 시간 등을 표현해 주는 말

전치사란 ‘앞에’, ‘옆에’, ‘뒤에’처럼 ‘어디에’라는 사물의 위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학교로 간다’처럼 ‘어디로’라는 방향 그리고 ‘몇 시에 밥 먹는다’에서 ‘몇 시에’라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또는 대명사가 와야 한다. to school, on the table, at 3 pm 같은 것들만 봐도 전치사 뒤에 있는 school, the table, 3 pm 등이 다 명사이지 않은가.



Dabong is on the ceiling. 다봉이는 천장에 있어.

Don't go to that convenient store. 저, 편의점에 가지 마.

I usually eat breakfast at 10 am. 난 주로 오전 10시에 아침을 먹어.





접속사 - 문장의 일부분이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

‘난 양주를 좋아한다.’, ‘난 소주를 좋아한다.’, ‘난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만 나열해서 말하는 건 로보캡밖에 없을 거다. 대개의 사람들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데, 그냥 문장만 이어서는 영어색하다. 이때 짧은 여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말이 바로 접속사다.

비단 문장 뿐만 아니라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등을 연결시킬 때도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접속사란 문장 내에서 단어나 구, 절(문장) 등을 연결시켜 주는 문장 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품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I like Soju and beer.(난 소주와 맥주를 좋아해.)나 I like Soju but I don't like beer.(난 소주는 좋아하지만 맥주는 좋아하지 않아.)에서 and나 but과 같은 말이 접속사이다.

우리말로로는 ‘그리고’,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것이 접속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and나 but 말고 또 어떤 접속사가 있을까? 그렇다! so(그래서)나 or(또는) 등도 많이 쓰는 접속사들이다.

Who would you like to marry, Daniel Henny or Brad Pitt or Sun Kim?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다니엘 헤니 아니면 브래드 피트 아니면 섀킴?



▶ 뭔가 연결할 때는 접속사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명사 :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computer(컴퓨터), noodle(라면), pain(고통), happiness(행복)

대명사 :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우리말의 ‘거시기’에 해당하는 말.

he(그), that(그것), it(이것)

관사 : 명사가 막연한 것인지, 지정된 것인지 구별해 주는 말.

a(어떤, 한), the(바로 그)

동사 : 주어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되는 말.

eat(먹다), love(사랑하다), cry(울다)

형용사 :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꾸며 주는 말.

handsome(잘생긴), perfect(완벽한), beautiful(아름다운)

부사 : 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꾸며 주는 말.

fast(빨리), so(꽤), very(아주)

전치사 : 명사 앞에서 시간이나 위치, 방향 등을 표현하는 말.

on(~에), inside(~안에), behind(~뒤에)

접속사 : 그리고, 그러나, 또는 등 문장의 일부나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

and(그리고), but(그러나), so(그래서), or(또는)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행동한다



여러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구 혹은 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품사란 것들은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나? 만약 '몇 단어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보. 아니, 이 사람들아, 가만 생각을 해 보라. 품사들은 다 한 단어로 돼 있잖아! Steve란 명사도 한 단어, beautiful이란 형용사도 한 단어, drink란 동사도 한 단어잖아. 안 그래?

그런데 말이야,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놈들도 있더라 이거야. 단어란 놈들도 때론 외롭나 보지. 에휴... 여럿이 뭉치고 싶은 그 외로운 심정을 내가 왜 모르리... 나 소개팅시켜 주면 내가 영어 특별과외 해 준다!! 음, 어쨌든, 이런 놈들이 바로 구와 절이란 말씀. 아니, 그럼 왜 간단하게 말 안 하고 골치 아

프게 여러 단어를 모아서 구나 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거냐고? 그건, 말을 하다 보면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상황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지. 이해가 안 되면 아래 예를 봐.

Drinking with friends is good.이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문장을 한번 보자고. 여기서 주어는 Drinking with friends란 말이지. 앞에서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 Drinking with friends가 명사란 말인가? 히어, 방금 설명하지 않았는가. Drinking with friends가 바로 구라고 하는 거다.

Drinking with friends is good.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주어 역할-구) 이다 좋은

여러 단어가 모여 하나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구 혹은 절이란 말씀!



I like forcing people to drink. 난 사람들 술 먹이는 것을 좋아해.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dumped by my girlfriend.

여기가 바로 내가 여친에게 차인 곳이야.



▶ 단어들이 모여 하나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합체해서 하나의 품사(명사, 형용사 등)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구와 절의 정체라는 말씀! 자, 이제 어떤 걸 '구'라고 하고 어떤 걸 '절'이라고 하는지 슬슬 궁금해지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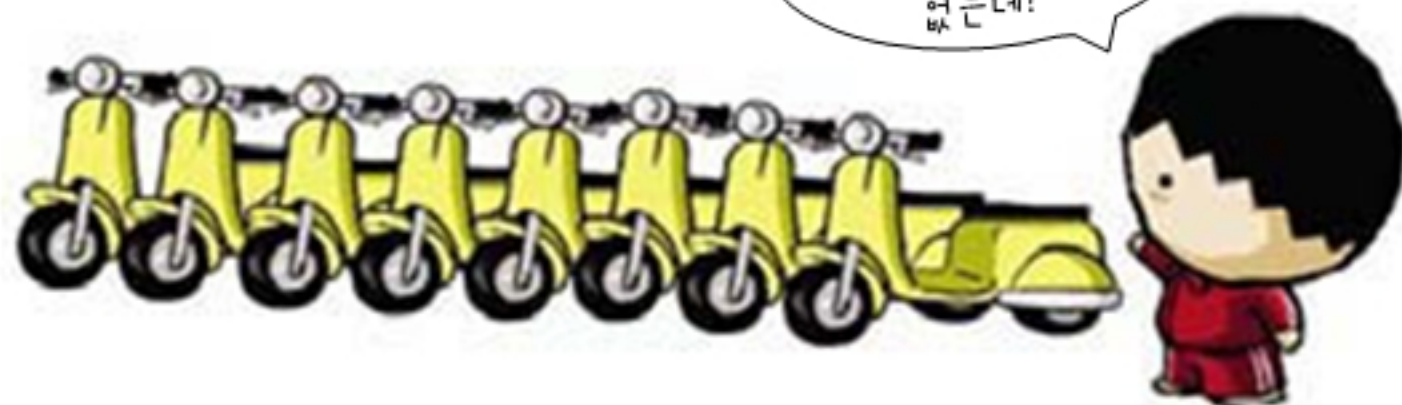


구 - 주어와 동사가 빠진 단어들의 모임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한 것, 기억하겠지?! 못 한다고? 하여간 구란 '주어나 동사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서 뭔가 부족한 탓에 문장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합체'를 말해. 말로만 설명해서는 어려울 테니 또 다시 친절한 예문을 살펴보자고.

Going out with Kim Tae-Hee is impossible.이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Going out with Kim Tae-Hee잖아. 그것이 impossible하다는 내용이고.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엄청 길다는 점은 눈치들 채셨는지? 여러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럼 Going out with Kim Tae-Hee만으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야. 문장에 동사(Going out)는 있는데 누가 김태희랑 사귀는 것인지 주어가 없잖아.

스쿠터만 잔뜩 있으면
뭐하냐, 탈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알겠지? 이렇게 주어와 동사 중 어느 하나가 없어 문장이 되지 못하는 녀석들을 똥땅 '구'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Going out with Kim Tae-Hee is

김태희랑 사귀다는 것은 (주어 역할-명사구)

하다

impossible.

불가능

구란 주어나 동사가 없어 불완전하게
합체했지만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
사로 행동하는 녀석들을 똥땅한다.



I like mixing Soju with beer. 난 소주랑 맥주 섞는 것을 좋아해.

My dream is marrying Kim Tae-Hee. 내 꿈은 김태희랑 결혼하는 것이야.

→ 이 문장을 '나의 꿈은 김태희와 결혼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웅감한 사람은 10분 동안 손들고 있을 것!

Look at that guy with a huge pot belly!! 저기 똥배가 산만한 인간 좀 봐!!

Steve's head is too big to wear this helmet.

스티브의 머리는 이 헬멧을 쓰기에는 너무 커.





절 -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의 모임

IQ 90 이상의 비범한 독자라면 이미 눈치를 챌겠지만, 절은 구와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다. 헛,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구랑 달리 절은 '완전한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이루는 녀석들'이라는 걸 알아맞힌 사람도 있는가?

그럼 예문을 보며 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 What I like is Soju. 란 문장을 보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인가? 앞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라. 여기서 주어는 What I like이다. 우리말로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소주다.'라는 의미인 것.

여기서 주어인 What I like만 살펴보면 주어(I)와 동사(like)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인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또다른 완전한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할 때 절이라고 한다.

나는 (주어) 원한다 (동사)

What I want is you.

내가 원하는 것은 (주어) 이다 (동사) 너 (보어)

절이란 완전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사로 행동하는 녀석들을 말하지.



I think that your head is made of solid stone.

내 생각엔 네 머리는 차돌덩어리인 것 같아.

What I want is money, nothing but money!!!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돈밖에 없단 말야!!!

I'd like to meet the person who threw a rock at my head.

제 머리에 돌 던지신 분 좀 뵙고 싶어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셈!!



구 : 주어나 동사가 빠져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러 단어들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절 :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모인 여러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Part 2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따로 있다!

Unit 5. 명사

Unit 6. 대명사

Unit 7. 형용사

Unit 8. 관사

Unit 9. 분사

Unit 10.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별
조금 받네~

주인공 이잖아~

영어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는 알아 두자고!



기억나는가? **명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생명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까지,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이 명사이다. 이렇게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닌가?



명사에 대해 크게 설명하자면 이게 전부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고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것 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배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셀 수 있는 명사

아까 명사 공부할 때 잠시 주위를 돌아봤지? 물론 잠시라도 이 책에서 눈을 떼고 싶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잠시 책을 덮고 주위를 살펴보자. 야동을 보다 잠시 꺼 둔 컴퓨터,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충전 안 해서 뻑뻑거리는 휴대폰 등, 참 우울한 모습이 아닐 수 없군. 하여간 방금 열거한 '이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모두 '**정해진 모양이 있는 물건들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이름들은 모두 '소주병 하나, 소주병 둘(one bottle, two bottles), ...'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다. 자, 이것이 포인트이니 기억하자! **눈으로 봐서 모양이 일정한 명사들은 모두 셀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유치할 수가!!'라고 트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인다. 하지만 그래 놓고 나중에 틀리지 말고 잘 들어 봐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computer의 복수형은 computers라고 하면 되고, box는 boxes라고 하면 된다. 하지만 명사가 -y로 끝난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뒤에 -es를 붙여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city의 복수형은 citys가 아니라 cities로 해야 된다는 말씀. 학창시절 많이 들어 본 애기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 명사가 -y로 끝난



다고 해도 -s만 붙이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일까? 예외적인 경우라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가지고... 단어가 -y로 끝나도 바로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s만 붙이면 된다. boys, days가 바로 그런 단어들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lion
사자



zebra
얼룩말



house
집



human
인간



flower
꽃



tree
나무

Someone threw a beer bottle to my head.

누가 내 대가리에 맥주 (한) 병을 집어던졌어.

I saw three drunken men peeing in public.

어떤 술 취한 자식 세 놈이 사람들 앞에서 오줌 누는 걸 보았어.

I raise five cats for my arthritis.

난 내 관절염 때문에 고양이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지.

I go out with six girlfriends. 난 여섯 명의 여친과 사귀고 있어.

I have three houses. 난 집이 세 채 나 있어.

I have three houses.
난 집이 세 채나 있어~



시간이나 거리도 셀 수 있나요?



'몇 시', '몇 미터', '몇 리터', '몇 마일' 등 말 그대로 단위를 나타내는 이름들도 비록 형태는 없지만 셀 수 있다. 선불교에 심취해 '시간은 헛된 것, 시간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한 시간, 두 시간, 또는 1미터, 2미터 등 각각의 단위를 세야 되니까 말이다.

He's been drinking for ten hours so far.

저 자식, 지금까지 10시간 내리 술 마시고 있어.

I can spit about 6 meters away.

내가 침을 뱉으면 한 6미터 정도 튀어.

100미터 앞에
골대 찍고 쓴다.
실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loneliness(외로움)이나 pain(괴로움), embarrassment(쪽팔림)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름들(추상명사)도 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헛것' 들을 하나, 둘 셀 수는 없겠지? education(교육), success(성공), kindness(친절), happiness(행복), knowledge(지식) 같은 명사들도 다 마찬가지. 애네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는 명사들이다. 셀 수도 없는데 복수 형태인들 존재하겠나? 그러니 lonelinesses(외로움들), educations(교육들), successes(성공들) 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은 쓰지도 말자고.





You ruin my happinesses!! (x)

You ruin my happiness!! (o) 너는 나의 행복을 짓밟는 놈이야!!

You always give me many anxieties. (x)

You always give me much anxiety. (o) 너는 항상 나에게 근심걱정을 안겨 줘.

Can you give me three informations? (x)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o) 나한테 정보 좀 줄래?

그럼, 길거리의 '오바이트'는 셀 수 있을까? 물론 억지를 쓴다면 '전봇대 옆 오바이트 하나, 약국 앞 오바이트 둘, ...'이라고 셀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따져 보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오바이트는 셀 수가 없다.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동시에 해 놓은 '초대형 오바이트'와 골목에 조금 '우욱~' 흘러 놓은 '오바이트 흔적'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건 억지다. 이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들의 이름(물질명사)**도 셀 수가 없다. water(물), rice(쌀), juice(주스), coffee(커피), beer(맥주), milk(우유), fire(불), sand(모래), smoke(연기), fog(안개)... 그리고 puke(오바이트) 등이 바로 그런 셀 수 없는 명사들이다.



Excuse me, two beers, please. (x)

Beer is like blood to me. (o) 나에게 있어 맥주는 피와 같아.

Wow! You drink more than six coffees a day! (x)

If you drink too much coffee, you will go bald. (o)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대머리가 돼.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어 셀 수 없는 명사(물질명사)도 세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궁하면 통하는 법, 물론 방법이 있다. 바로 셀 수 없는 물질을 담은 '용기', 즉 그릇의 수를 세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커피 하나'가 아니라 '커피 한 잔' 같이 말이다.

Excuse me, two bottles of beer, please.

죄송하지만, 맥주 두 병 주세요.

You drink more than six cups of coffee a day!

하루에 커피를 여섯 잔 이상이나 마시다니!

이것만은 **꼭** 알아두셈!!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셀 수 있는 명사 :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태가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명사 뒤에 -(e)s를 붙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나 거리처럼 재는 단위가 있는 명사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는 명사 :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따로 복수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들의 건망증을 위해 태어난 '거시기'



술은 신이 인간에게만 내려 주신 축복이자, 생명수이다. 만약 세상에 술이 없어진다면 나는 영어선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한강수에 몸을 날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술도 인간에게 이로울 수만은 없는가 보다. 바로 무리한 음주생활은 뇌세포 사망으로 이어져 건망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는 말씀. 에잉, 알미운 술 같으니라고. 술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 건망증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명사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대명사**,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것이다.



대명사는 뭐에 쓰는 거냐고? 우리말에 '그거', '저거', '너', '나', '거시기'처럼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쓰기 귀찮던가 생각이 안 날 때 아무 때나 알아서 쓰면 된다. 편리하지? 여기까진 앞에서 주욱 설명했다. 그런데 이 대명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사람한테 쓰는 **인칭대명사**와 사물에 쓰는 **지시대명사**가 그것이다.



사람 이름을 대신하는 나, 너, 그, 그녀 그리고 그들

사람은 누구나, 실명이든 가명이든 자기 이름이 있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 이름을 계속 반복해 쓰는 것이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수는 말이야... 그래서 철수가... 그런데 철수는... 그러다가 철수의 여자친구가...' 벌써부터 괜히 철수한테 정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칭대명사**다. 즉, '**사람 이름을 대신해서 I, you, he, she와 같이 부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파벳을 마스터하고 나면 거의 이런 인칭대명사부터 배운다는 사실만 봐도 이 녀석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다.



They are clock-watchers in my class.

저 자식들(은) 내 수업을 아주 따분하게 생각해.

(*clock-watcher :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안 하고 시계만 보는 자식들)

I don't like you, I don't like him, I don't like her, I don't like them!!

난 너도 싫고, 개도 싫고, 그 여자애도 싫고, 그 사람들 다 싫어!!

I didn't mean to hurt her. 난 그 여자애(를)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You stole my girlfriend. I'm gonna kick your ass!

너 내(나의) 여친을 채간 거냐? 너 나한테 한번 죽어 봐

That's their problem. I don't give a damn.

그건 개네들(의) 문제야. 내가 신경을 왜 써.



대명사를 써서 만드는 my book, your drink 같은 말을 확 줄여서 그냥 '내꺼', '니꺼'라고 하는 영어는 없나요?



왜 없어! 있지. 바로 <소유격 인칭대명사+명사>를 하나로 확 뭉쳐 버리면 된다는 말씀! my cell phone(나의 핸드폰) 같은 말을 그냥 '내 것(mine)', '네 것(yours)'으로 말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소유대명사라고 하는데, 귀찮아도 일단 나열해 보자면 mine(내 것), yours(네 것), his(개 것), hers(그 여자애 것), ours(우리 것), theirs(개네들 것) 등이 있다.

He's my boyfriend. → He's **mine**. 그는 내 것이야.

This is our laptop computer. → This is **ours**. 이건 우리 것이야.

It's their problem. → It's **theirs**. 그건 그들 것이야.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이것, 저것, 그것만 있으면
오케이

눈 앞에 뵈히 있는 것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슬퍼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귀찮아서 말하기가 싫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거', '저거' 때로는 '거시기', '있잖아 그거' 등 애매모호하면서도 서로 알아듣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를 쓴다. 이런 경우 영어로는 **this, that, it**을 쓰는데 이 녀석들을 **지시대명사**라고 부른다.

지시대명사는 어떻게 쓰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가까운 곳에 하나 있을 때는 **this(또는 it)**, 여러 개 있을 때는 **these**를 쓰면 된다. 만약 먼 곳에 하나가 있으면 **that**, 여러 개 있으면 **those**를 쓰면 끝. 어떤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냐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알아서 잘 쓰면 되는 것이다.



This looks like a pumpkin. And it reminds me of your face.

이거 호박 같이 생겼네. 이거 보니까 니 얼굴 생각난다.

That is my cell phone. Don't ever use that!

저거 내 핸드폰이야! 절대 쓰지 마라!

Don't touch that! That's a time bomb!

그거 손대지 마! 시한폭탄이야!

Those look delicious.

Can you bring those to me?

저것들, 맛있게 생겼군. 좀 가져와 보게나.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

인칭대명사 : I(나), you(너), he(그), she(그녀), they(그들) 등 사람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그 의미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

지시대명사 : this(이것)-these(이것들), that(저것)-those(저것들), it(이것)이 있으며, 사물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Unit 7. 형용사

노메이크업 명사를 예쁘게 꾸며 주는 명사 전용 화장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명사를 꾸며 주는 단어**가 **형용사**이다. 왜 형용사라는 것이 생겨났는지 설명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 그렇다! 명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명사가 아니므로 그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동차(car)라고 해서 다 같은 자동차(car)가 아니다. 티코 같이 **small**한 차도 있는 반면 그랜저 같이 **big**한 차도 있다. 또 영어책이라고 해서 다 같은 **English book**이 아니다. 이 책처럼 **helpful**(유용한)한 책도 있지만, 정말 돈이 아까운 **useless**(쓸모없는)한 책도 있다.

이렇게 명사들을 섬세하게 설명하고 형용해서 개성을 살려 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다. 사람들은 이 책을 쓴 '선킴' 그리고 '김풍'이란 이름에 수없이 많은 단어를 붙여 형용한다. '영리한 선킴', '잘생긴 선킴', '인기 많은 김풍', '똑똑한 김풍' 등. 그렇다. **형용사**란 별거벗어서 썰렁한 **명사**에 **이런저런** **화장품**을 발라 **꾸며 주는 품사**이다. 그래



서 말 그대로 명사를 ‘형용’해 주는 말인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



 **화장을 할 때도 순서가 있듯, 명사를 꾸밀 때도 규칙이 있다.**

우리말과 똑같다. ‘멍청한 인간’, ‘귀여운 홍수아’에서 ‘멍청한’, ‘귀여운’ 등의 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stupid friend, ugly sister, interesting game 등과 같이 **<형용사+명사>의 구조**로 나간다는 말씀.

You are a cheap loser!

너 정말 쪼잔한 놈이다!

쪼잔한 (형용사) 놈!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 주는 화장품이다.
따라서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도 없다.



I saw a **disappointing** movie. 실망스런 영화를 하나 봤어.

A **big fat** cat is usually a **yummy** cat.

크고 뚱뚱한 고양이는 주로 맛있는 고양이이다.

Smart and handsome men usually die young.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주로 요절을 하지.

I had an **interesting** blind date.

재미있는 소개팅 한 건 했어.



〈명사+형용사〉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다. something과 anything 같은 명사의 경우는 형용사가 뒤꽂무니에 달라붙어 앞의 명사를 꾸며 준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은 new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고 something new라고 한다. 요즘 유명 휴대폰 광고에도 나오지?

new something (x) → something new (o) 새로운 것
special anything (x) → anything special (o) 특별한 것



형용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다는 편견을 버려!

stupid James와는 달리 James is stupid.처럼 stupid라는 형용사가 동사 뒤에서 앞의 주어를 이러쿵저러쿵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다. 즉, ‘멍청한 제임스’가 아니라 ‘제임스는 멍청하다.’라고 할 때에도 영어에서는 stupid라는 형용사가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지.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경우, 우리말로 **‘무엇은**



어떻다', '누구는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만사 오케이! 이 경우 <주어=형용사>로 이해하면 된다. James is stupid.의 경우 James= stupid인 것이다.

He is impossible! 그는 불가능하다!(개 정말 못 말리겠다!)

주어 형용사(He=impossible)

Are you gentle? 넌 점잖니? (you=gentle)

Daniel Henny is good-looking. But he is too skinny.

다니엘 헨니는 잘생겼는데 너무 말랐어. (Daniel Henny=good-looking, skinny)

That movie is awesome!! 저 영화 죽인다!! (That movie=awesome)

Your thighs are too thick. 니 허벅지는 정말 두껍다. (Your thighs=thick)



▶ 다른 사람을 놀릴 때는 형용사가 쓰인다.



앞에서 말하는 He is impossible. 같은 구조에서 동사는 다 be동사인가요? 다른 동사를 쓰는 경우는 없나요?



be동사 말고 다른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장에서 쓸 수 있는 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다. 자, 보자. James became rich.란 문장을 보면 '제임스는 현재 부자가 되었다.'라는 James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즉, James=rich란 뜻이 된다. 이처럼 '주어의 현재 상태'를 말할 때는 be동사 말고 become과 같은 다른 동사도 쓸 수 있다는 말씀! 이 밖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로는 look, stay, remain 등이 있다.



I became angry when they call me "big head."

그들이 나보고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화가 났어.(I=angry)

You look depressed. Here, have a drink.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여. 자, 술 한잔 해.(You=depressed)

이것만은 꼭 ~
알아 두셈!!



형용사는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꾸며 주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경우가 있고, 동사 뒤에서 앞의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다.

You are a cheap loser! 넌 정말 쪼잔한 놈이야!

He is impossible! 그는 불가능하다!



명사의 필수 휴대품

- ‘대머리’ 명사에는 관사 ‘모자’가
제격이다



영어의 명사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명사는 항상 ‘모자’를 쓴다. 그 모자의 이름이 바로 **관사**다. 영어에서 명사는 언제나 관사를 앞에 달고 다닌다. 아마 이것이 우리말과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이번에 확실히 배워 두자.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a/an** 그리고 **the**이다. 그럼 어느 때에 어떤 관사를 쓰는 걸까? 이는 그 명사가 ‘애매모호한 명사’냐, ‘정해진 확실한 명사’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명사의 명확성**’을 구분 짓는 것이 **관사의 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 여기 오다가 누구 봤어.(I saw a man on the way over.)’라는 문장처럼 ‘누구’라는 애매모호한 명사에는 a를 붙여 a

ma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도대체 누구 봤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므로 the를 붙여 the man이라고 쓰는 것이다.



색 수 있는 명사 중 아무거나 하나일 땐 a/an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자.

I picked a fight on a man on the street today, it turned out it was your brother.

나 오늘 길에서 어떤 놈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네 형이더라.

위의 문장에서 앞에 있는 a man은 수많은 길거리 행인들 중 **막연한 한 놈**인 것이다. 이런 경우 명사 앞에 a란 모자를 살짝 씌워 주면 되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에서 **부정관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부정관사 a/an을 붙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여야 한다는 것과 단수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하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으니까.

A dog bit my cat to death.

어떤 개가 내 고양이 물어 죽였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떠돌이 명사
에는 a/an을 앞에 쓰고 '아무거나',
'어떤' 혹은 '한'으로 해석한다.



Do you have a cell phone? 휴대폰 아무거나 있으면 좀 빌리자.

Set me up with a girl. 나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줘.

I need a gun to rob a bank.

은행 하나 털려고 하는데 총 하나가 필요해, 아무거나.

If you live in LA,

you have to buy a car.

LA에서 살려면, 차를 한 대 사야 돼, 아무거나.



언제 a를 쓰고 언제 an을 쓰나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잘 들어. 명사 중에 a, e, i, o, u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a란 모자 대신 an이란 모자를 씌워 줘야 돼. 그런 명사들은 탈모가 더욱 심한 명사들이기 때문에 an이라는 더 두꺼운 모자로 잘 가려줘야 되거든. 사실 다 발음하기 편하려고 하다가 생긴 거니까 발음을 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I got stuck in an elevator with an old grandma!!

나 지금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 갇혀 있어!!



너도 아는 확실한 바로 그 명사 앞에는 the

A: 너 《술에 취한 영어》란 책 들어 봤어?

B: 당근이지!

A: 그 책 선김이 썼더라.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영어로 바꾸면 The book was written by Sun Kim.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고?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그래서 the를 붙여 the book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바로 그'라는 말이 붙는다면 정관사 the를 쓰면 된다.

The dog was your dog!

그 개는 바로 니 개야!

상대방도 아는 바로 '그'에는 the를 쓴다.



I loved a woman... the woman was my teacher!!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어... 그 여자는 바로 내 선생님이었지!!

Set me up with the girl.

나 그 여자 좀 소개시켜 줘.



I bought a car. The car comes with a female driver.

나 차 한 대 샀어. 그 차는 여자 운전기사도 같이 따라 나와.

Remember the pretty girl in your company?

너네 회사의 그 예쁜 아가씨 기억나지?



아니, 어떤 글을 보니까 the beautiful까지만 나오고 말이 끝나던 데 원래 the beautiful girl 또는 the beautiful boy처럼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것도 다 중빠리, 고빠리 때 배웠던 거다!! <the+형용사>라고 쓰면 바로 명사가 된다고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라는 뜻이 된다고 배웠으려나. 아직도 기억이 가물거리나? 예를 들어 the rich라고 하면 '돈 많은 인간', 즉 '부자'란 말이고, the stupid라고 하면 '멍청한 인간'이란 말이니 '돌대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은 꼭 ~
알아 두셈!!



영어에서 명사 앞에는 항상 관사가 붙는다. 관사에는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가 있다.

a/an :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명사 앞에 붙는 관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한 개만 있는 것에만 붙일 수 있다. '어떤'으로 해석한다.

the :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구체적인 명칭인 명사 앞에 붙는 관사로 '그'라고 해석한다.

Unit 9. 분사

동사를 형용사로 변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 분사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무서운 속담이 있다. 사자 밥이 되고 싶거나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 궁금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영어공부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이 뭐하러 잠자는 사자를 귀찮게 하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으니, 바로 '잠자는 사자'라는 표현이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sleeping lion이 된다.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라. 뭔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지! 바로 lion은 명사이고 그 앞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은 형용사여야 하는데 sleeping은 sleep이란 동사의 -ing 형이 아닌가!!!

여기까지 어느정도 감을 잡았다면 앞으로 공부할 '분사'란 것은 이제 누워서 식은 죽 빨대로 빨아 먹기보다 쉽다고 할 수 있겠다.



분사는 바로 sleeping 처럼 '형용사 노릇을 하는 동사'를 말한다. 더 간단하게 말해 줄까? <분사=형용사>다. 알겠나? 뭐라고? 그렇다!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로 변신한 것이다.



-ing는 현재분사라는 이름의 형용사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면 동사가 형용사로 변신하는데, 이런 것을 **현재분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동사에게 형용사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 동사를 sleep→sleeping(잠자는), bore→boring(따분한)처럼 바꿔야 한다는 말씀.

현재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꾸며 주는 명사가 있어야 한다. interesting guy(웃기는 놈), boring movie(지루한 영화), shocking news(충격적인 소식)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 주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 줘도 되고, James is stupid. 같이 동사 뒤에서 앞의 명사를 꾸며 줄 수도 있다는 거 말이다! 혹시 기억 못하고 있다면 [Unit 7. 형용사] 부분을 복습할 것.

당근, 분사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shocking news라고 해도 되고 The news is shocking.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씀!

It was a very **boring** movie.

진짜 지루한 영화였어.

동사를 형용사로 변신시키려면 뒤에 -ing만 붙이면 된다.



Let sleeping dogs lie. 잠자는 개는 그냥 놔둬라. (sleep→sleeping)

That news is so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런 소식이군. (disappoint→disappointing)

Someone puked on the street! That is so disgusting!

누가 길거리에 오바이트 해 뱉어! 정말 역겹군! (disgust→disgusting)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란 표현을 하기 위해 동사에 -ing를 붙이면 현재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ing인데 현재분사인지는 현재진행형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현재진행형과 현재분사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떤 동작이 지금 계속 중’이란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진행형은 동사이다. 따라서 대부분 앞에 be동사가 있으며 꾸며 주고 있는 명사도 없다. 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즉, 반드시 어떤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 예문을 보면 좀 더 쉽게 구분될 것이다.

Sun Kim is **walking** toward the bar.

선킴은 술집을 향해 걷고 있다.(현재진행형-동사)

Sun Kim is a **walking** English dictionary.

선킴은 걸어다니는 영어사전이다.(현재분사-형용사)

→ walking이 English dictionary를 앞에서 꾸며 주고 있다.



-ed/d는 과거분사라는 이름의 형용사

동사원형에 -ing 대신 -ed/d를 붙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go-went-gone 같이 지 맘대로 변하는 동사에서 맨 뒤에 오는 gone과 같은 놈을 써도 형용사가 된다. 즉, 동사를 kill→killed, study→studied 등으로 바꾸면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과거분사**라고 부른다.

그럼 아까 공부했던 현재분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재분사**는 ‘뭔가를 하는’의 능동적인 뉘앙스를 가진 반면에 **과거분사**는 ‘뭔가를 당하는’의 수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killing dog**라고 하면 ‘죽인 개(살인마 개)’라는 뜻이지만 **killed dog** 하면 ‘죽임을

당한 개’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분사는 ‘어떤 일을 당한 불쌍한 형용사’다!! 알겠나?



I can eat **cooked** cockroaches.

난 요리된 바퀴벌레는 먹을 수 있어.

동사 뒤에 -ed/d가 붙으면 맨날 당하는 불쌍한 형용사가 된다.



Sun Kim is not a **spoiled** child. 선킴은 망나니가 아니다.(spoil→spoiled)

What a **fucked up** face! 정말 얼굴이 자유분방하군!(fuck up→fucked up)

What should I do with my **broken** heart?!!

나의 이 상처 받은 영혼을 어찌하오리까?!!(break→broken)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할 때 왜 You look **tired**.라고 하나요? tiring 아닌가요?



‘너 피곤해 보인다.’를 영어로 말해 보라고 하면 You look **tiring**.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tiring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tired해 보인다는 것이다. 왜냐고? 네가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함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 따라서 tiring이라고 하면 ‘남을 피곤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tiring하게 보이는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Jenny, you look **tired**. What's up?

제니, 너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이야?

My mom **seemed** satisfied when my dad passed away.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꽤 만족스러워 보이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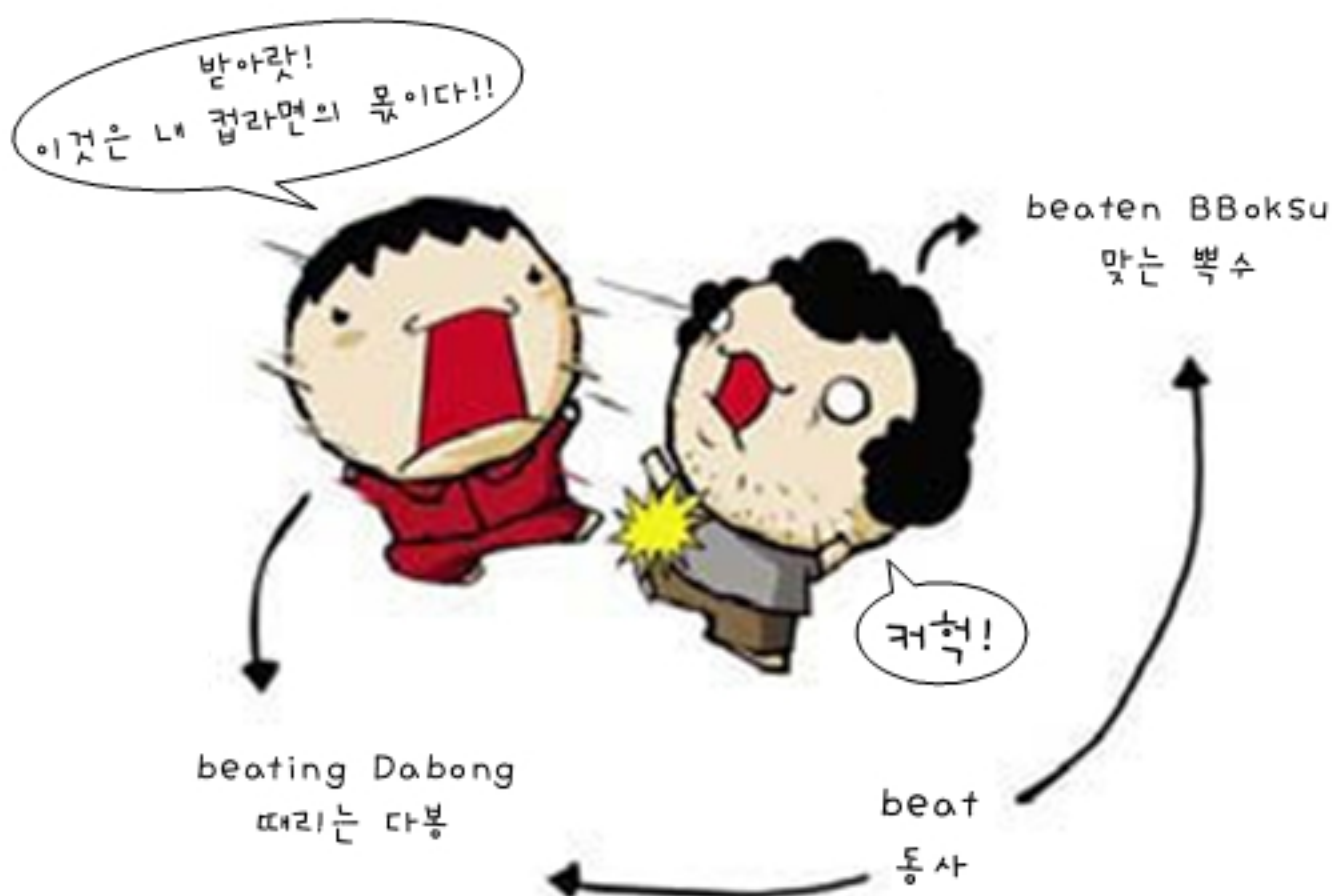




현재분사 대 과거분사

영어로 말을 하다가 interesting/interested, boring/bored, exciting/excited처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중 언제 현재분사를 쓰고, 또 언제 과거분사를 쓸 것인가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거 헷갈리면 뜻이 180도 달라진다. 이 참에 제대로 감을 잡아 보자!

자, 내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영화가 열라 지루하다. 그럼 뭘 써야 될까? boring? bored? 그 영화가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지겨운' 것이므로 The movie was boring.이라고 써야 하고, 내 입장에서 I am bored.가 되는 거다. 만약 The movie is bored.라고 하면 '그 영화는 관객에 의해 지루함을 느꼈다.'고 하는 엄청 심오한 형이상학적 문장이 되는 거다. 그리고 I was boring.이라고 하면 '난 참 재미도 없는 놈이야.'란 뜻으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말이 되는 거다.



The movie was **boring**. 그 영화 열라 재미없었어.

❖ I was **bored**. 난 지루했다.

The party was **interesting**. 그 파티 아주 재미있었어.

❖ I was **interested**. 난 재미있었지.

The news was **shocking**. 그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 I was **shocked**. 난 충격 먹었어.

It was **disgusting**. 진짜 역겹다.

❖ I was **disgusted**. 난 역겨웠어.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동사 뒤에 -ing나 -ed/d를 붙이면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그것을 분사라고 부른다.

현재분사 : 동사원형 뒤에 -ing만 붙이면 된다. '~하는'이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된다.

과거분사 : 동사원형 뒤에 -ed/d만 붙이면 된다. 항상 당하는 느낌의 형용사로 '~된'이라는 의미가 된다.



세상이 불공평한 건 형용사의 비교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물론 '평등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알고 보면 정말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다. 길거리를 걷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라. 어떤 놈은 나랑 비슷하게 생겼고, 또 어떤 놈은 나보다 조금 잘 생겼고, 또 어떤 놈은 질투에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이제껏 본 인간들 중 가장 잘생겼다. 가진 돈을 봐도 그렇다. 나랑 비슷하게 사는 놈도 있고, 나보다 더 잘 사는 놈도 있고, 또 정말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일으키고 싶을 정도로 질투 나게 최고로 잘 사는 인간들도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비교**다.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법. 이런 비교를 말로서 완벽하

게 승화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형용사의 비교급**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비교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비교하게 된다.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너만큼은 잘났어.'처럼 **동등한 비교**를 나타내는 '**원급 비교**', '그래, 네가 나보다 잘났다.'처럼 **둘 중 하나가 우위임을 나타내는 '비교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래, 네가 제일 잘났다.'처럼 **셋 이상 중에 최고를 나타내는 '최상급'**이 있다.



 **<as ~ as>만 쓰면 도토리 키재기? - 원급 비교**

<as + 형용사 + as>는 그나마 불공평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표현이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못 났어도 너만큼은 잘났다.'라는 말을 영어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서 '너만큼은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둬라.

I'm as smart as you!! 나도 너만큼은 똑똑해!!

as - as 사이에 형용사를 넣으면 비슷하다는 말이 된다.
'누구만큼은 할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as - as.



Steve is as stupid as a fish. 스티브는 정말 멍어만큼 멍청해.

Soju is as expensive as beer. 소주도 맥주만큼 비싸.

I am as handsome as Jung Woo-Sung! 난 정우성만큼 잘생겼어!



‘네 머리가 내 머리보다 세 배는 더 크다.’에서 ‘몇 배’란 말은 어떻게 써요?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상대에게 복수의 일격을 날릴 수 있다. ‘나도 너만큼은 똑똑해.’란 말을 가지고도 성이 안 찰 때 ‘사실, 난 너보다 100배는 더 똑똑해.’라는 말을 해 주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누구보다 몇 배만큼 ~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숫자 times as+형용사+as>로 만들어 주면 끝이다. I am 100 times as smart as you!!! 라고 하면 ‘난 너보다 100배는 똑똑해!!!’란 흐뭇한 말이 된다.



My wife is ten times as pretty as yours!

내 마누라가 네 마누라보다 열 배는 더 예뻐!



<-er+than>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척 할 수 있다 - 비교급

자, 드디어 불평등한 현실로 돌아왔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은 세상에 깔렸다. 이렇게 불평등한 비교급은 <A is+형용사의 비교급+than+B>의 형식으로 만들면 된다.

아, 참. ‘형용사의 비교급’ 만드는 법을 알려 준다는 걸 깜빡했군. 하지만 심하게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겁 먹을 필요는 없다.

kind, short 같은 2음절 이하의 짧은 형용사는 뒤에 -er만 붙여 주면 끝! kind(친절한)는 kinder(더 친절한), short(짧은)은 shorter(더 짧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형용사가 beautiful, disgusting 같이 3음절 이상의 긴 단어라면 형용사는 그대로 두고 앞에 more만 붙여 주면 된다. 그러니까 beautiful(아름다운)은 more beautiful(더 아름다운), disgusting(역겨운)은 more disgusting(더 역겨운)이 된다.



I think Hong Soo-A is **prettier than** Kim Tae-Hee.

내 생각에는 홍수아가 김태희보다 더 예쁜 것 같아.

형용사의 비교급 다음에 **than**을 넣으면 **than**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하다'를 말하게 된다.



As an eye-opener in the morning, beer is **better than** Soju.

아침에 해장술로는, 맥주가 소주보다 나아.

So-Maek is **more devastating than** A-bomb.

소맥이 그냥 폭탄주보다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이야.

BMW is **more useful than** Tico in picking up chicks.

여자를 꼬시는 데는 티코보단 BMW가 더 효과적이지.

Your body odor is **more disgusting than** the smell of sewer.

네 몸 냄새가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겹다, 야.



그냥 '더 역겹다' 말고 '훨씬 더 역겹다'란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표현 배워서 어디다 써먹게? 친구한테? 호호호, 사실 맞는 말이다. 비교도 비교 나름이다. 장동건은 옥동자보다 그냥 더 잘생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잘생겼다. Jang Dong-Gun is **more handsome than** Ok Dong-Ja.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비교급으로 만든 형용사 앞에 much, even, far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붙이면 만사 오케이. 그래서 Jang Dong-Gun is **much more handsome than** Ok Dong

-Ja.라고 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한 그대를 위해 하나 더 알려 줄까? 만일 '훨.....얼씬'이란 뉘앙스로 말하고 싶으면 much를 서너 개 쓰면 된다. much, much, much, much **better** 이런 식으로. 정말 쉽지?



Your fart is **even stinkier than** skunk.

너의 방귀 냄새는 스컹크보다도 훨씬 지독한 것 같아.

Taekwon V is **much, much, much, much more powerful than** Mazinga Z.

태권 V가 마징가 Z보다 훨.....얼씬 더 강력해.



the 다음에 최상급만 써 주면 최고라는 뜻 - 최상급

자,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할 때가 왔다. 바로 '누군가가 **최고로 ~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최고다!! ← 누구 중에서?

우리 애가 제일 공부 잘 한다!!! ← 어떤 애들 중에서?



이 집 삼겹살이 최고로 맛있다!!! ← 이 동네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상급을 쓰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 중에서’라는 딱 정해진 범위가 있어야 한다. 그 범위에 따라서 최상급의 뉘앙스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왜냐고? ‘나는 최고의 미남이다!!!’라고 아무리 소리 쳐 봐도 ‘우리 집에서’라고 하면 허접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라고 하면 강력한 포스(force)가 느껴지는 것이다. 꼭 기억해라. 최상급은 ‘~ 중에서’라는 범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아니, 비교급으로도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는 통탄지 같은 소리를 누가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귀찮게 또 물어보는군. 사실이다.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다.

〈A+형용사 비교급+than any other+단수명사〉

〈A+형용사 비교급+than all the other+복수명사〉

위와 같은 식으로 쓰면 형용사의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뜻은 최상급이 된다. 무슨 말이고?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자! 예문을 보니 쉽게 이해가 가지?

Jenny is **heavier than any other girl** in the world.

제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자애보다도 더 뚱뚱하다.

→ Jenny is **the heaviest girl** in the world.

제니는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애다.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all the other things** in the world. 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

→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럼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최상급 역시 비교급을 만들던 것과 마찬가지로 3음절 이상의 긴 단어와 짧은 단어는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짧은 단어의 경우 형용사 뒤에 -est만 붙이면 되고, 3음절 이상의 경우 형용사 앞에 most를 붙이면 된다. 참, 최상급 앞에는 항상 정관사 the가 온다는 것도 꼭 알아 두시길.

다봉이는 크다.



다봉이는 김풍유치원에서 가장 크다.



저 아저씨
여기서
뭐하셈?

뭔지 몰라도
기분이 좋은가봐?

Dabong is **the tallest child** at Kim

Poong kindergarten. 다봉이가 김풍유치원에서 제일 크다.

‘최고’를 나타낼 때는 the 다음에 형용사의 최상급을 쓰고 어디에서 최고인지 설명하면 끝!



Steve's head is **the biggest one** in his class.

스티브의 대가리는 자기 학급에서 제일 크다.



Are you the poorest guy in the world or something?

네가 이 세상 최고의 거지라도 되냐?

Jenny is the sexiest lady in the entire neighborhood.

제니는 이 동네에서 제일 섹시한 여인이지.

Your fart has the worst odor I've ever smelled.

너의 방귀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 본 냄새 중 최악이야.

이 것만은 **꼭** ~
알아 두셈!!



형용사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있다.

원급 : '나도 너만큼은 잘생겼어.'라고 말할 때 '~만큼'에 해당하는 말.
〈A+as+형용사+as+B〉

비교급 : '내가 너보다는 잘생겼지.'라고 말할 때 '~보다는'에 해당하는 말.
〈A+형용사의 비교급(-er)+than+B〉

최상급 :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라고 말할 때 '제일'에 해당하는 말.
〈A+the 형용사의 최상급(-est)+범위〉





Part 3



동사를 알면 영어의 절반이 해결된다!

Unit 11. 동사

Unit 12. 부사

Unit 13. 의문과 부정

Unit 14. 조동사

Unit 15. 기본시제

Unit 16. 진행시제

Unit 17. 완료시제

Unit 18. 동명사

Unit 19. to부정사

Unit 20. 수동태

Unit 21. 가정법



주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내 이름은 동사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기'라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동사는 존재의 '움직임'은 물론 '상태'까지도 모두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자,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동사란 이런 것이다.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수능 논술시험 때도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맞춰 문장을 열심히 써 놓고도 뭔가 허전하고 완벽한 문장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렇다! 바로 '~했다'라는 마무리가 빠져서 그렇다. '나는 어제 학교 앞에서 술을 맛있게...'까지만 얘기하다가 말을 끊어 버린다면 듣고 있던 친구의

인내심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 붙이겠지. 맛있게, 뭐??!!

동사는 이렇게 '~하다', '~했다', '~할 것이다'처럼 문장에서 주인공, 즉 주어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문장의 '엔진'과 같은 존재다.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는가?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엔진 없이 차를 굴리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것이다.



be동사도 '동사'인데... 그럼 무슨 동작이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쿨쿨 자다(sleep)', '죽이다(kill)', '때리다(beat)'처럼 주인공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이다. 누구나 여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이해를 한다. 문제는 be동사라는 녀석들이다. 분명히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데도 왜 이놈들을 '동사'라고 부르는 데에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는 걸까?

좋아, be동사, 즉 am, are, is도 동사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가수 '비'처럼 멋진 춤을 추는 것이 be동사의 움직임일까? 아니다. 사실

be동사 자체는 특정한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exist)'와 '상태(become)'를 나타내는 '철학적인 뜻'을 가진 동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만히 있기’라는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인 것이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다’로 해석되는 be동사도 동사라! 움직
있뿐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동작이니까!



I am so mad at you! 나 너한테 정말 화났어!

○ I become so mad at you!

Are you hungry? 배 고프니?

○ Do you become hungry?

I am in the bathroom, taking a dump now!

나 지금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어!

○ I exist in the bathroom, taking a dump now!

I am in jail, honey. 자기, 나 구속됐어.

○ I exist in jail, honey.



‘~을/를’이 있는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라고?

기억나는가? 주어 다음에 동사만 와도 문장이 된다고 했다. I go.나 You win.처럼 말이다. 그런데 동사 중에는 그 동사만으로 시원하게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에 더 따라와야 할 것만 같은, 장식이 따라붙는 동사들이 있다.

자, 다음 문장들을 볼까?

나는 먹는다.(I eat.)

너는 때린다.(You hit.)

그들은 죽인다.(They kill.)

뭔가 허전하지 않나? 도대체 뭘 먹는 걸까? 도대체 누구를 때리는 걸까? 또 그들은 누구를 죽이는 걸까? 바로 주인공이 하는 행동의 대상인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것이다. 이렇게 eat이나 hit, kill 같은 동사들은 꼭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동사들을 ‘타인한테 의지하는 나약한 동사’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부른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타동사’!!! 간단하게 ‘~을/를’이 붙은 목적어가 있으면 다 타동사다.



I drink the beer. 난 맥주를 마신다.

‘~을/를’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뒤에 오면 무조건 타동사!



After I poked Jenny's asshole so hard, she died instantly.

제니한테 좀 강하게 똥침을 놔는데 그만 죽사해 버리더라고.

I can't have a drink. I have liver cancer.

난 술(을) 못 마셔. 나, 간암(을) 가지고 있어(간암에 걸렸어).

Do you love me? But, I'm sorry.

I hate you.

나를 사랑해?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난 너를 싫어해.



다른 사람에게 노가다 시킬 때는 '노가다동사'를 쓰자!

여기서 '시키다'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킬 때의 그 '시키다', 즉 '주문하다'가 아니다. 말 그대로 빨래를 시킨다든지 집안 청소를 시킨다든지 할 때 그 '시키다'이다. 아마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를 학교 다닐 때는 **사역동사**라고 배웠을 것이다. 왜 '사역'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 걸까? 그냥 **노가다동사**라고 하면 느낌이 팍팍 오는데.

노가다 동사는 '철수에게 원샷을 시키다.', '동생에게 방 청소를 시키다.' 등 '누구에게 어떤 노가다를 시키는 상황'을 표현하는 동사로, 대표선수에는 **have**와 **make**가 있다.



〈have/make + 누구 + 노가다 짓〉의 순서로 쓰면 '누구에게 노가다 짓을 시키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된다. 여기서 '노가다 짓'은 반드시 **동사원형**의 형태로 써야 하므로 주의하길...



아니, 선생님 왜 거짓말 하세요!?! 위에선 〈have/make + 누구 +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have/make + 누구 +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도 봤단 말이예요!!!



왜 화부터 내냐? 설명 잘 들어라. 그럴 경우는 '누구'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오는 경우다.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는 사람에게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책상한테 방 청소를 시킬 순 없지 않은가! 공포영화가 아닌 이상, 따라서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는 '사물이 어떤 일을 당하게 만들다'란 뉘앙스로 노가다 동사가 쓰인 것이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I had my pants clean. 하면 '나는 내 바지에게 청소를 시켰다.'란 공포영화가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동사원형 대신 과거분사를 넣어 I had my pants cleaned.라고 하면 '나는 내 바지가 세탁을 당하게 만들었다.'란 뜻이 되어 '난 바지를 빨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바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에 무엇을 당하게 만들다'란 뜻으로 동사원형 대신 과거분사가 오는 것이다.



I had my pants clean.(x)

I had my pants cleaned.(O)

I had my hair bleached.

나는 나의 머리가 탈색 당하게 만들었다.(나, 머리 탈색했다.)



Don't **make** me finish up my drink.

만들다 나를 원상하도록

나 원상 시키지 마.

'누구에게 ~을 시키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have와 make라는 노가다 동사를 생각하라.
노가다 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온다!!!



My dad **had** me marry you by force. 우리 아빠가 강제로 당신이랑 결혼하게 시켰어.

Don't **make** me go mad. I might kill you.

나 열 빠치게 시키지 마. 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My boyfriend **had** me **erase** all the phone numbers of my ex
boyfriends.

내 남친이 말이야, 내 예전 남친들 전화번호 다 지우라고 시켰어.



이것만은 **꼭** ~
알아 두셈!!



동사에는 be동사와 일반동사, 그리고 사역동사가 있다.

be동사 : '~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존재'나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동사 : 일반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자동사 - 목적어가 필요없는 동사

I win. 내가 이겼어. You lose. 네가 졌어.

타동사 -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

I eat the dinner. 난 저녁을 먹어.

사역동사(노가다동사) :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표현 하
고 싶을 때 쓰는 동사. 대표적으로 have와 make가 있다.

Unit 12. 부사

동작을 더욱 섬세하고 맛깔스럽게



토끼가 달리는 것과 거북이가 달리는 것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
런 차이점을 무시하고 둘 다 '달린다'라고 쓰는 건 왠지 불공정해 보
이지 않나? 달리는 것도 달리는 것 나름이다. 토끼처럼 빨리 달릴 수
도 있는 것이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빨리' 또는 '천천히' 아니면 '열라 빨리'처럼 **동작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사**다.

또 다른 예를 볼까? '수영하다(swim)'라는 동작이 다 같이 '수영하
다' 하나로 설명될 수는 없는 일이다. 실내 수영장에서 '주부 수영 강
습'을 받으며 유유자적 수영하는 것과 바다 한가운데서 뒤에 조스가
따라올 때 수영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은가.

자, 기억하자! 부사는 **동작을 더욱 자세하게 꾸며 주는 말**이다. 즉,



동사를 꾸며 주는 말이란 뜻이지. 또한 부사는 욕심이 많아 **형용사나 다른 부사**까지 꾸며 준다. 이제부터 예문을 보면서 '부사의 세계'를 탐험해 볼까?



Sun Kim speaks English. 선킴은 영어로 얘기한다.

◉ Sun Kim speaks English **very well**. 선킴은 영어로 아주 잘 얘기한다.

Kiss me, darling. 키스해 줘 자기.

◉ Kiss me, darling, **slowly and gently**.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해 줘, 자기.



얼마나 빨리라고? 빨리 달려!!! 빨리!! 빨리!!

후배에게 술잔을 비우라고 했는데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그 후배를 끌고 나가서 팬다. 그냥 패는 것이 아니라 '겁나게' 팬다. 즉, 그냥 We beat him.이 아니라 We beat him severely.란 말이지. 영어 공부하려면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게'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해 그냥 try가 아니라 try hard란 말이지. 이렇게 동작에 '팬 정도', '노력하는 정도'를 가미해 주는 severely, hard와 같은 단어들이 바로 부사다. 즉, 우리말로 '얼마나 ~하다'라고 해석될 때 그 '얼마나'가 바로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 주면서 '동작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말씀!

Don't study **hard**.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

Diabetes kills you **slowly**. 당뇨병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가지.

Kiss me **gently** and hold me **aggressively**!

부드럽게 키스해 줘. 그리고 으스러지도록 안아 줘

Don't drink **fast**. The night is still young.

그렇게 빨리 술 마시지 마. 아직 초저녁이라고.



얼마나 빨리 달려라고? 빨리 달려!!! 빨리!! 빨리!!

나는 혼자 밥 먹는 버릇이 있는데, 남들이 내 밥 뺏어 먹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 하여간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버릇을 지속하다 보니 밥을 엄청 빨리 먹게 되었지. 보통 자장면 한 그릇 먹는 데 2분이 안 걸린다면 믿겠나? 그냥 빨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어서 탈이지. 이런 나의 식사 속도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I eat fast. 가지곤 뭔가 허전하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빨리(fast)'란 부사를 꾸며 주는 또 다른 부사 '너무(too)'를 fast 바로 앞에 넣어 주면 끝! I eat too fast.(난 엄청 빨리 먹어.)





Dabong walks. → Dabong walks slowly. → Dabong walks too slowly.
다봉이가 걷는다. 다봉이가 천천히 걷는다. 다봉이가 무지하게 천천히 걷는다.

Steve sneaks out of school extremely often.

스티브 자식, 너무 자주 학교를 땡땡이 쳐.

You're driving too fast!! Slow down!!

너 운전 너무 빨리 하고 있어!! 속도 좀 줄여!!

Steve held his girlfriend too aggressively.

스티브 자식, 여친을 너무 세게 껴안았대.



내가 그냥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지!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홍수아 같은 하늘이 내리신 미인을 우리와 동시대에 살게 만들어 주셔서 말이다. 홍수아는 그냥 예쁜 것이 아니다. '아주' 예쁘다. 즉, She is beautiful. 가지고는 그녀의 미모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다. 그래서 beautiful 앞에 더 예쁘다는 뜻으로 so를 붙여 She is so beautiful. 이라고 쓰면 '그녀는 정말 예쁘다.'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beautiful 같은 '형용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도 so 같은 멋쟁이 부사가 등장한다. 이때도 부사는 꾸며 주는 형용사 바로 앞에 붙는다.

You are so ugly. 너 정말 못생겼다.

Susan is too young to marry you! 너랑 결혼하기에 수잔은 너무 어려!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동사를 꾸미는 부사 : 주어가 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고 싶을 때 동사 뒤에 부사를 넣는다.

Dabong walks **slowly**. 다봉이가 천천히 걷는다.

부사를 꾸미는 부사 : 좀더 강한 정도를 보여주고 싶을 땐 부사 앞에 또 다른 부사를 넣어 꾸며 주면 된다.

Dabong walks **too slowly**. 다봉이가 무지하게 천천히 걷는다.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 형용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땐 형용사 앞에 부사를 넣으면 된다.

You are **so ugly**. 너 정말 못생겼다.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하는 문법?



한국 사람들이 꼭 고쳐야 하는 안 좋은 버릇 중 하나가 바로 ‘예, 아니 오’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끔은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저 사람이 Yes라고 한 건지 No라고 한 건지 여전히 감을 못 잡을 때도 있다.

우리와 달리 영미인들은 ‘매몰찰 정도로’ Yes와 No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한국인이라면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바로 거절을 못하고 ‘여유 좀 생기면... 나도 한번 얼마 있는지 알아보고...’라며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지만, 영미인들은 친구가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No!라고 정확하게 거절한다.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다. 적어도 ‘혹시나...’ 하는 괜한 기대는



하지 않게 되니까!

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Yes와 No! 아주 하찮고 간단해 보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까딱하면 180도 달라지는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덩달아 ‘그런가? 아닌가?’를 묻는 의문문 만드는 법도 알아보자.



 너 바보지? 아니야, 난 바보가 아니라고.
- be동사의 부정과 의문

be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be동사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된다. 쉬운 것 같지? 하지만 막상 미국인과 얼굴을 맞대면 이렇게 간단한 표현도 입에서 안 나온다. 만만하게 보지 말고 착실히 공부해 두자.



▶ be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부정문



I am bold! 난 대머리아!

I am not bold! 난 대머리가 아냐!

Steve is dead-drunk. 스티브는 완전히 폭지가 들어.

Steve is not dead-drunk.

스티브가 완전히 폭지가 든 건 아니야.



be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하다. He is gay.와 같이 be동사(=is, am, are)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be동사만 문장 맨 앞으로 옮기면 끝! 따라서 He is gay.라는 문장은 Is he gay?라고 하면 된다는 말씀!

I am a ladykiller. 난 선수야.

Am I a ladykiller? 내가 선수니?

They were born to be playboys. 개들은 한량 팔자로 태어났어.

Were they born to be playboys? 개네들은 한량 팔자로 태어났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니, 안 만만해 보여.

-일반동사의 부정과 의문

알다시피 be동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동사들을 일반동사라고 하지. 이런 일반동사들은 be동사처럼 not만 달랑 써 줘서는 부정문이 되질 않고, 주어랑 동사를 자리 바꿈해도 의문문이 되질 않아. 애네들은 반드시 do라는 조동사를 써 줘야 한다는 말씀. 왜냐고는 묻지 말길 바란다. 언어란 원래 약속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그럼, I eat dog.(난 개를 먹어.)라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일반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에는 동사 앞에 do not(don't)만 넣으면 끝! 여기서 주어가 he나 she 같은 3인칭 단수면 does not(doesn't)을, 문장이 과거면 주어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did not(didn't)을 넣어 주면 된다. 이때 주어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정말 쉽지?



I hate bold men. 난 대머리 남자를 싫어해.

I don't hate bold men. 난 대머리 남자를 싫어하지 않아.

You look like a dog. 너, 개새끼 닮았다.

You don't look like a dog. 너, 개새끼 안 닮았다.



She goes out with loaded guys. 그 여자에, 돈 많은 남자와 사귀어.

She doesn't go out with loaded guys.

그 여자에, 돈 많은 남자와 사귀지 않아.

이번에는 일반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볼까? 의문문은 문장 앞에 **do**만 붙이면 끝! 물론 주어(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나 시제(과거일 때는 **did**)에 따라 부정문 만들 때처럼 조금씩 달라진다. 이때도 역시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I look easy. 난 만만하게 보인다.

Do I look easy?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He drinks like there's no tomorrow. 그 자식 정말 대책 없이 술을 마셔.

Does he drink like there's no tomorrow?

그 자식, 정말 대책 없이 술 퍼 마시냐?

You said I'm ugly. 너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했어.

Did you say I'm ugly? 너, 내가 못생겼다고 했지?



부정의문문의 대답은 반대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예의가 바른 나머지 상대방 위주로 대답을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아직 식사 안 하셨죠?'라고 물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예, 아직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미국 애들은 철저히 자기 위주로 말한다. 내가 긍정이면 무조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 만일 위의 경우를 미국인이 대답한다면 **No, I don't.**(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왜? '안 먹었다.'라는 말이 부정이기 때문. 우리에게겐 생소한 표현 방법이지만 예문을 통해 그 차이를 익혀 두자.

A: You don't like this, do you? 너 이거 싫어하지, 그렇지?

B: No, I don't. 응, 싫어해.

A: You're not from New York, right? 너 뉴욕 출신 아니지, 그렇지?

B: Yes, I'm from New York. 아니요, 뉴욕 출신입니다.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be동사의 부정과 의문

부정 : be동사 다음에 **not**만 붙이면 끝!

의문 : 주어와 동사의 순서만 바꾸면 된다.

일반동사의 부정과 의문

부정 : 조동사 **do**를 이용해서 동사 뒤에 **don't**를 붙인다.

의문 : 조동사 **do**만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오케이!!(주어와 동사의 위치도 바뀌지 않는다.)



동사의 느낌을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동사의 '시다바리', 조동사



조동사의 '조'는 말 그대로 '보조'의 '조'다. 이제 감이 잡히나? 그렇다! 조동사는 바로 '동사를 옆에서 보조하는 동사의 시다바리'인 것이다! 솔직히 조동사가 없으면 썰렁해지는 문장들이 많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국민들의 국민 영어인 I can do it!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조동사 can이 없으면 I do it!이라는 썰렁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즉,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한다.'라는 '로보캡 문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 꼭 기억하자. **조동사는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의 느낌을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존재**다. 즉, 동사 앞에 어떤 조동사를 붙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즉, I can do it.은 돼도 I can did it.이란 영어는 없다는 말씀.



용기를 심어 주는, '할 수 있다' 조동사 can

힘없는 문장에도 '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심어 주는 조동사가 바로 can이다. **동사 앞에 can이 붙으면 그 동사의 동작에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증가시킨다.** 조동사 can은 I kill it.이라는 맛있는 문장을 I can kill it!(난 저놈을 죽일 수 있어!)이라는 '능력 있는' 문장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과거의 능력은 <could + 동사원형>이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조동사 can을 동사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그리고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따라온다.



I can stay awake drinking seven days in a row!!!

난 술 마시면서 7일 연평으로 날밤 갈 수 있어!!!

I can't drink Soju. Please don't force me to drink it.

나 소주 못 마셔, 제발 억지로 먹이지 좀 마.





can의 미래형도 있나요?



당근 있지. 하지만 일반동사의 미래형을 만드는 것처럼 will can이 아니다. 왜냐하면 can은 동사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 can을 be able to로 바꿔 will be able to라고 쓰면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미래의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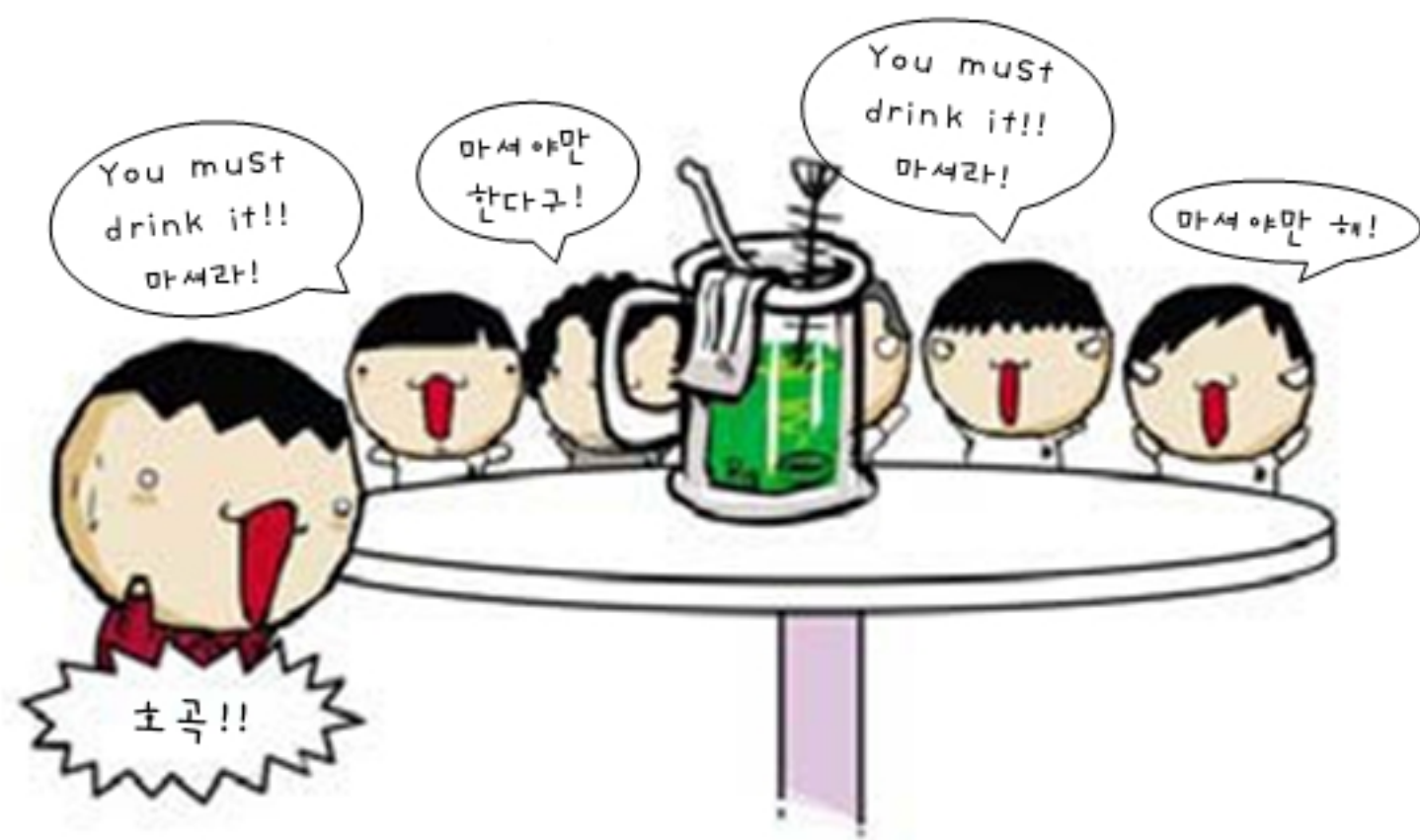
I will be able to marry Jennifer if I pass the bar exam.

사법고시에 통과하면 제니퍼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의무감으로 뚝뚝 뭉친, '해야해' 조동사 must

<must/should/have to/ought to+동사원형>으로 쓰면 그 동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알지? 아, 이왕 말 나온 김에 must의 과거형도 한번 알아볼까? must의 과거는 절대 musted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자! must를 비롯해서 모든 의무 조동사의 과거는 그냥 had to다. 정말 간단하지?



You must drink it! 마셔라!

'해야만 해' 조동사 must를 동사 앞에
두면 동사에 의무의 느낌이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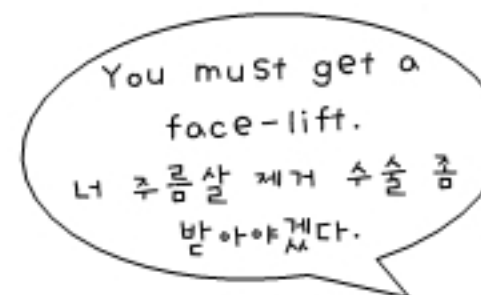
You must get a face-lift. 너 주름살 제거 수술 좀 받아야겠다.

You should cut down on alcohol. 너 술 좀 줄여야 돼.

I had to have a plastic surgery to get this job.

여기 취직하려면 성형수술 했었어야 했어.

I ought to tell him his fly is open! 저 자식, 남대문 열렸다고 말해 줘야 해!



must에 '~해야 한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다면서요?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란 의무의 뜻 외에도 '~임에 틀림없다'란 강한 확신과 추측의 뜻도 있다.

You must be genius!!! How did you know 2 times 2 is 4?

넌 정말 천재가 틀림없어!!! 어떻게 2 곱하기 2가 4인 줄 알았어?

I must be out of my mind. That fat girl looks very attractive to me.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저 뚱녀가 아주 예뻐 보이는걸.





의지가 확확 불타는, '할 거야' 조동사 will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마구 느껴지는 조동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장에 will이 들어가면 반드시 할 거라는 의지의 느낌이 가득 차는 것이다. 우연히 홍수아를 만나 I will marry with Hong Soo-A.라고 했다면 '그냥' 홍수아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결혼할 것이라는... 어찌 보면 결연한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will**을 쓴다.



I will drink it! 마신대!

'할 거야' 조동사 will이 문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할 거라는 비장함까지 느껴지게 한다.



I will kill you if you don't pay me back! 돈 안 갚으면 확 죽여 버린다

Don't worry. He **will** come! 걱정 마, 그 자식은 반드시 와!

I **will** not go there if there's no drink. 술 없으면 나 거기 절대 안 가.



will의 과거는 would인가요?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다. 즉, would를 '~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면 생기게 될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씀. 미국 친구들이 절교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would는 과거형으로 쓰이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즉, used to와 같은 뜻이란 말이지. 헷갈린다 고? 그렇다면 예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I **would** stop by that bar after school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베리 때 학교 끝나면 저 술집에 종종 들리곤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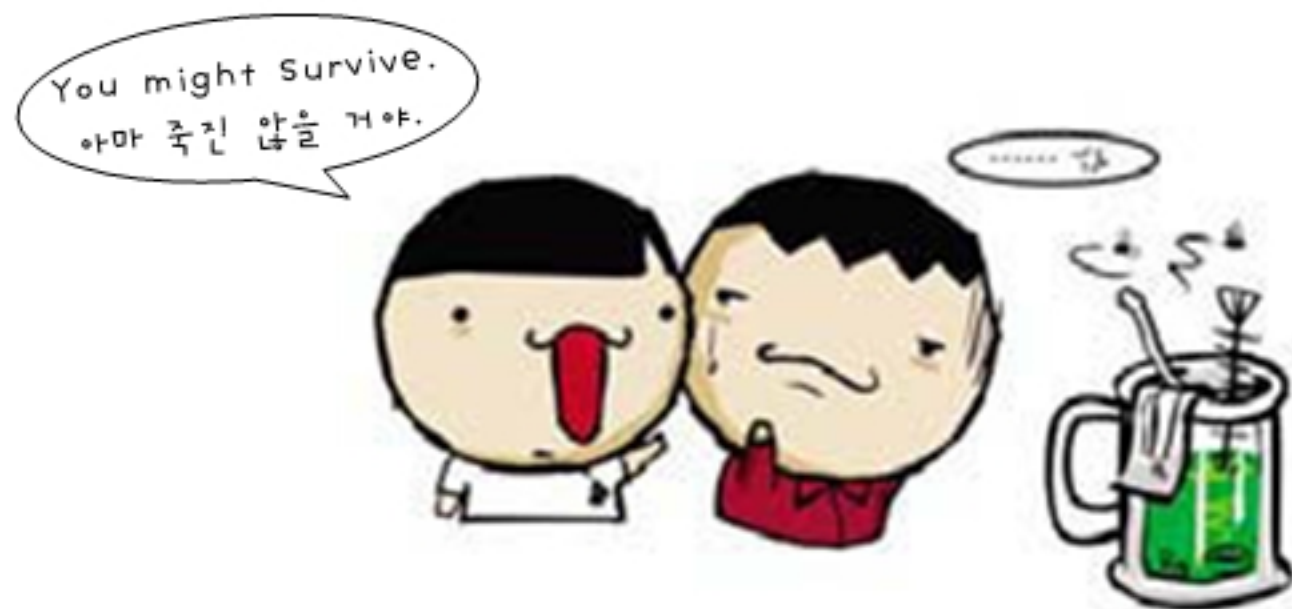
자신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아마' 조동사 may와 might

조동사 may가 들어가면 '아마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겠지? 문제는 might다.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다. 하지만 뜻은 '아마 ~일지도 몰랐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may보다 더 약한 느낌으로 '아...마 어쩌...면'의 뉘앙스이다.

'스티브 여기 오는 거 확실해?'라고 물었을 때 '아마 올 것 같아.'라고 말하고 싶으면 He **may** come.이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친구가 또 묻는다. '확실히 얘기해! 만일 안 오면 너 죽어! 그 자식 와? 안 와?!!!'



라고 하면 기가 좀 죽겠지? 그래서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꼬리를 내리며 말할 때 He might... come.이라고 하면 된다.



You might survive. 아마 죽진 않을 거야.

might를 쓰면 엄청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아...마 어쩌면...'이라는 뜻!



If you wear this sunflower, people may think you are "Crazy Cow." 이 해바라기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널 '미친 소'로 생각할지도 몰라.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to your dad.

너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

I'm going to slap your face. It might hurt you.

내가 니 귀싸대기를 때릴 건데, 아마 아플지도 몰라.



may랑 can이 합쳐질 수도 있다면서요?



may(~일지도 모른다)와 can(~할 수 있다)이 합쳐지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아주 비열하고 자신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표현이 된다. 자신감 넘치는 조동사 will 밖에 모르는 필자 같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거부감 생기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may와 can을 합친다고 해서 조동사 두 개를 그대로 나열하는 may can의 형태가 아니라 may be able to 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I may be able to go there. 아마...도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아...



조동사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고 양지바른 곳이 있으면 그늘진 곳이 있듯이, 긍정문이 있으면 그 반대로 부정문도 있다. 조동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반대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만드냐고? 호호호. 너무 간단해서 방법을 알면 짜증이 날걸?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게임 끝! 뭐야, 너무 쉽다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들의 부정 형태를 예문으로 정리해 보자.

I can not marry you because you are my cousin!

넌 내 사촌이기 때문에 난 너와 결혼할 수 없어!

I must not take off my wig in front of ladies.

아가씨들 앞에서 난 절대 가발을 벗으면 안 돼.



I will not tell you anything! 너한테 절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Your date partner might not be good-looking.

네 소개팅 파트너가 그리 예쁘지 않을지도 몰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의 **must** 형제들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나요?



물론이지! **must**와 형제인 **should**, **ought to**, **have to** 같은 것들도 **not**을 붙여 부정형을 만들어 쓰면 미국 친구들이 칭찬해 준다. 영어 잘 한다고.

You should not hang around with schoolyard bullies.

학교 강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좀 마라.

You ought not to go out with a minor.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have to**의 경우 부정문은 **don't have to**라고 표현하지 않고 **must not**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don't have to**는 **need not**과 같은 의미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 어려우면 그냥 **must not**만 써라.

You have to go now.

→ **You must not** go now. 넌 지금 가지 말아야 해.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조동사란 동사 앞에 위치해 동사에 좀더 다양한 느낌을 넣는 단어를 말한다.

can :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더해 준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must :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더해 준다.

You must do it! 넌 해야만 해!

will : 꼭 할 거라는 느낌을 더해 준다.

I will do it! 난 꼭 할 거야!

may, might :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는 느낌을 더해 준다.

I might do it. 아마 난 할 거야.



다봉이의 생일날



can



must



might





may



will



Unit 15. 기본시제

현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시제가 뭐가? 쉽게 말해 시간을 말해 주는 것으로,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구분 지어 주는 표현이다.

어떤 언어에는 이러한 동사의 시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 어제 술 마신다.', '난 이틀 전에 술 마신다.', '작년에 봤던 시험 떨어진다.', '어저께 스티브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같은 '영구와 땡칠이' 말을 하는 언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사의 시제는 각 나라 말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각기 다르다.

우리말의 시제는 크게 '과거-현재-미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어의 경우는 우리말의 시제보다 좀더 복잡하다. '과거-현재-미래' 시제에 '완료시제'라는 것이 하나씩 더 추가되어서 크게는 '과거완료-과거-



현재완료-현재-미래완료-미래'의 여섯 가지로 나뉜다. 물론 많이 들어봤을 진행시제도 있다.

영어의 시제가 우리말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해도 '완료시제'만 나오면 눈 앞이 캄캄해졌던 이유는 바로 우리말에 '완료시제'라고 부를 만한 것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니 겁 먹지 말고 차근차근 살펴보자. 그럼, 우리말과 다르다는 영어시제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



☀ 현재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시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착각을 한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 '너 지금 뭐 하니?(What are you doing now?)'란 질문에 I read a book., I go to college. 같은 현재시제 문장의 엽기적인 대답을 서슴지 않는다. 꼭! 기억하자.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 시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시제는 어떨 때 쓴단 말인가? **현재시제는 습관적으로 늘 하는 일**, 그리고 **현재의 상태**, **변함없는 상식이나 진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압구정동으로 간다.', '난 말이야, 한번 술 마시면 꼭 5차까지는 가.'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나 '나 간담에 걸렸어.', '그 자식, 사실 바보야.'와 같은 현재의 상태, 그리고 '칼로 찔리면 많이 아파.', '술 많이 마시면 일찍 죽어.' 등과 같은 변함없는 상식이나 진리에만 현재시제가 쓰인다는 말이다.



그러니 미국 친구가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물었는데 I drink with my friends.라고 대답하면 '나 지금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가 아니라 '난 친구들이랑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란 말이 되고, 줄지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현재시제는 어떻게 만들까? 1, 2인칭일 경우에는 그냥 동사원형을 쓰고,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꿈무니에 -s 또는 -es만 붙여주면 만사 땡! 뭐? 3인칭 단수가 뭐냐고? 나(I), 너(you), 우리(we)가 아닌 '그놈', '저 기집애' 등 제 3자를 나타내는 he, she, it 등이 한 명 또는 하나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Singles usually die young. 독신자들은 주로 요절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재가 아니야!
습관이나 현재 상태, 진짜엔 현재시제로 써야 해.



Steve beats up his wife whenever he's drunk.

스티브 자식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여편네를 두들겨 패.

I don't date anyone who's poor and ugly.

저는요, (습관적으로) 돈 없고 못 생긴 애들이랑은 데이트 안 해요.

The quacks told me I have liver cancer!

그 돌팔이들이 글썽 나보고 간암에 걸렸대! (*quack: 돌팔이 의사)

Smoking makes you impotent. 흡연은 사람을 고자로 만든다.



과거시제란, 과거의 '딱 한 시점'에 일어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과거'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고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리 옛날 일도 아니다. 왜? 바로 1초 전만 하더라도 흘러간 시간, 즉 과거이기 때문. 사실 현재란 시제는 참 애매모호하다.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고 있는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벌써 과거가 되어 버리지 않는가.

과거시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얘기한다. 그리고 영어의 과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딱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난 여기서 15년 동안 살

았어.'라고 말했을 경우 여기서 '살았어'는 영어의 과거시제로 쓸 수 없다. 왜냐고?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큰소리로 따라 하자! 영어의 과거시제는 **과거의 딱 한 시점에 일어난 이미 지나간 사건**을 얘기한다!!!! 또한 과거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 자주 쓰인다.



I puked on the street last night.

내가 어젯밤 그 길거리에서 오바이트를 했었지.

과거의 딱 한 시점에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말할 땐 과거시제를 쓰는 거야.



I was kicked out of school last month.

나 지난달에 학교에서 퇴학당했어. (언제? 과거의 딱 한 시점인 지난달)

I saw you shoplifting at the store yesterday!

어제 니가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거 봤어!

(언제? 과거의 딱 한 시점인 어제)

I smoked pot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17.

난 열일곱 살 때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워 봤어. (언제? 과거의 딱 한 시점인 내가 열일곱 살 때)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

미래시제라는 말과 함께 생각나는 단어는? 그렇다, will. 이 단어만 동사 앞에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미래로 날아갈 수 있다. 미래시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았겠지?

너무 간단하게 끝나니 서운한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입이 아프도록 따라 했지만 정확한 차이점을 물으면 부끄러움에 얼굴만 빨개지는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실 그 차이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풍 씨와 나는 이 책에 목숨 걸었다. 꼭 대박을 내고야 말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미래에는 will을 쓴다. 그런 반면 의지박약하고 그냥 놔둬도 이루어지는 일은 be going to를 쓴다. 피가 철철 흐르는 범인은 그냥 놔둬도 죽게 되겠지? 이런 경우 be going to를 쓰는 것이다.



be going to survive



will survive

We will make it the best seller of all time!!! 우리는 꼭 대박을 만들 것이다!!!

He's going to die soon anyway. Just leave him alone.

어차피 곧 죽을 새끼야. 그냥 놔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 be going to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만 놔둬도 어차피 일어날 일'을 주로 말한다. 한 잔만 하자고 시작한 술자리에서 떡이 되도록 마시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일어날 일에는 be going to를 쓴다. 그럼 부정문은? be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된다. be not going to ~처럼.



I think I'm going to puke. 나 쏠려, 올라올 것 같아.

Let's drink till we die!! It's going to be so fun!!!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 보자!! 짱 재미있겠다!!!

We're going to control ourselves tonight, OK?

오늘 밤은 딱 한 잔이야, 알았지?

반면, will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꼭 하고야 말 것이란 비장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럼 '꼭 하지 않고야 말겠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동사의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will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된다.



I will kill you if you call me a bonehead again!!!

한 번만 더 나를 닭대가리라고 부르면 죽여 버리겠어!!!

I will pay for the drink!! 술값은 내가 꼭 낼 거야!!

That asshole will not spit out the truth.

저 새끼, 절대 사실을 안 볼 것 같아.



will not의 준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호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will not은 간단히 줄여서 won't로 쓰기도 한다. 솔직히 구어체 영어에서는 will not보다 won't를 더 많이 쓴다. 발음할 때 won't에 강하게 강세를 줘서 상대방에게 '난 절대 안 해!!!'라는 강력한 포스를 전달해 보도록.

I won't marry you no matter what!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너랑 결혼 안 해!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현재시제 : 습관이나 현재의 상태,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3인칭 단수에서는 동사 뒤에 -s/es를 붙여 준다.

과거시제 :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ed/d를 붙여 준다.

미래시제 :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will은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다는 의미일 때, be going to는 그냥 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을 표현하는 데 쓴다.

Unit 16. 진행시제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땐
-ing를 기억하라!



'나 지금 작업 중이야!'라는 말은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이서진이 나왔던 모 휴대폰 광고의 멘트 '나 지금 작업 중이야.'는 현재진행시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한창 행동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고, 이런 경우 **현재진행시제**를 쓰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미국 친구가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물었을 때 '영,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라고 말하려면 I drink with my friends.가 아니라 I'm drinking with my friends.라고 해야 하는 것도 친구가 묻고 있는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하고 있어', '~하는 중이야'라고 표현되는 것은 모두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공식은 <be 동사+-ing>인 것, 모두 알고 있지?



I'm drinking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한잔 하고 있어.

지금 타자 하고 있는 일(-하는 중이야)을
표현할 때에는 현재진행시제를 써야 한다구~



I'm seeing Sun Kim these days. 나 요즘 선킴하고 사귀고 있는 중이야.

I'm choking on a steak! Help! Help!

지금 고기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겠어. 살려 줘 살려 줘

Steve is making a pass on your girlfriend now!

스티브 자식, 지금 니 여친한테 작업 들어가고 있어

(*make a pass on: on 이하에게 추파를 던지다, 작업 들어가다)

Is he coming here or what?!!

If he's late, he's a dead meat!

이 새끼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하여간 늦으면 죽었어!



현재진행시제로 미래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던데?



오호! 제법인걸? 맞아. 가까운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 미래의 일을 지금부터 주욱 연결해서 현재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반드시 내일 아침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부터 내일 아침 떠나는 시점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진행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I will leave tomorrow morning.을 그냥 I'm leaving tomorrow morning.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씀! 주의할 것은 이런 경우 tomorrow라든지 next week 같은 명확한 미래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것, 잊지 말도록.

Don't worry! I'm finishing it by Friday!

걱정 마! 금요일까지는 꼭 끝낼게

James, get your clothes and go! My parents are returning home soon. 제임스, 빨리 옷 주워 입고 나가! 엄마, 아빠 곧 집에 오신대.



'방금 전에 당신들 뭐하고 있었어?'라고 과거의 행적을
묻을 땐 과거진행시제

간단히 말해 도박 현장 같은 곳을 덮치는 짜릿한 장면을 상상하면 과거진행시제는 완전히 이해한 것이다. 하나, 둘, 셋! 팡! 도박 하우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화들짝 놀라며 판돈을 숨기는 도박사들에게 경찰들이 주로 하는 말, '방금 전에 당신들 뭐 하고 있었어!!!!' 이것이 바로 과거진행시제이다. 즉, 우리말로 '~하고 있었다'에 딱 맞는 것이 바로 과거진행시제인 것이다.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 너 뭐하고 있었어?’, ‘너 아까 내 컴퓨터로 뭐하고 있었나?’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진행시제는 ‘언제’라는 과거의 한 특정한 시간을 같이 말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할 때’라는 뜻의 when이 자주 함께 쓰인다. 과거진행시제는 <was/were + -ing>처럼 쓴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I was watching TV just a minute ago.

방금 전에 티비 보고 있었어.

과거 뭘 하고 있었는지(-하고 있었어)
표현할 때에는 과거진행시제를 써야 해.



What were you doing just a minute ago?

방금 전에 너 뭐하고 있었어?

I was taking a shower all naked when you called me.

당신이 전화했을 때 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샤워하고 있었어요.

Jenny was going out with me when she proposed to you.

제니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당시 제니는 나와 사귀고 있었어.

Steve was sleeping drunk on the street when a car ran over

him. 차에 치였을 당시 스티브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서 뺨어 자고 있었어.



‘그때는 나 술 한잔 하고 있을 거야!’라고 일어났을
때 미래진행시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미래진행시제를 자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6시쯤 뭐하고 있을 거냐고? 아마 그때쯤엔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있을 거야.’라는 문장을 보자. 여기서 ‘~을 하고 있을 거야’라는 부분이 바로 미래진행시제인 것이다. 별거 아니지? ‘미래에 무언가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will be+ -ing>처럼 쓰면 된다.

자, 간단히 기억하자! ‘6시쯤 뭐할 거야?’는 미래시제, ‘6시쯤 뭐하고 있을 거야?’는 미래진행시제.



I will be drinking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한잔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나중에 하고
있는 일(~하고 있을 거야)을 표현할
때에는 미래진행시제를 쓴다!



A: What will you be doing around six o'clock?

6시쯤 뭐하고 있을 거야?

B: I will be getting shit-faced with my buddies.

아마 그때쯤엔 애들이랑 맛이 가고 있을 거야. (*get shit-faced : 술에 완전 맛이 가다)

A: What will you be doing tomorrow?

너 내일 뭐하고 있을 거야?

B: I will be sleeping like a log. So, don't you ever bother me.

나 내일 시체놀이 하고 있을 거니까. 절대 나 귀찮게 하지 마.

(*sleep like a log : 쥐 죽은 듯 곤히 자다)

A: What will you be doing when you become an adult?

넌 어른이 되면 뭐하고 있을 거니?

B: I will be living with supermodels at the Blue House.

청와대에서 슈퍼모델들이랑 살고 있을 거야.

이것만은 꼭
알아두셈!!



현재진행시제 : 지금 한창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하고 있어',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된다. <be동사 +-ing>

과거진행시제 : 방금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행적을 말할 때 쓰는 시제. '~하고 있었어'로 해석된다. <was/were +-ing>

미래진행시제 :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말할 때 쓰는 시제. '~하고 있을 거야'로 해석된다. <will be +-ing>

Unit 17. 완료시제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시제의 다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학창시절 영어시간에 '완료'라는 말만 나오면 식은 땀을 줄줄 흘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우리말에는 완료라는 시제가 없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가 완료시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원리를 이해하면 완료시제만큼 쉬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완료시제의 원리는 뭘까?

우리말의 기본시제인 '과거-현재-미래'의 사이사이에 끼어서 '과거 완료-과거-현재완료-현재-미래완료-미래' 식으로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시제가 바로 완료시제다. 어때, 간단하지? 뭐라고? 아직도 어렵다고?

간단하게 현재완료시제를 예로 들어 보자. 방금 설명했듯이 현재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제다. 그건 무슨 말이겠는가? 바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 아니겠어? 즉, ‘나 이 집에서 15년 동안 살았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았어(lived)’라는 과거시제로 대충 넘어가지만 영어에서는 ‘살아왔어(have lived)’라는 현재완료시제를 써 줘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완료 - 과거 - **현재완료** - 현재 - **미래완료** - 미래



나는 여기서 10년을 살아왔어 - 현재완료시제

현재완료시제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옛날에 단번에 끝난 일(과거시제)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치자. 그러면 I was sick today.가 아니다. 왜냐고? 지난밤부터(과거) 오늘 아침까지(현재) 계속 골골거리고 있는 거니까! I have been sick all day long.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I was sick today.가 완전히 틀린 문장은 아니다. 이 표현은 ‘오늘 계속 끔찍 앓았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오늘 아팠어.’라는 단순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옆집에 오랜만에 놀러 갔더니 꼬마애가 놀랄 정도로 자라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너 많이 컸구나.’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도 You grew so big.이 아니라 You have grown so big!이라고 해야 한다. 예전부터 주욱 계속해서 커 온 것이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훌쩍 커버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I was sick today.와 달리 You grew so big.이란 문장은 아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라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계속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단순시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완료시제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시제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미국 애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할 수 있다. 현재완료는 <have/has + 과거분사>로 만든다. 잘 기억해 두시길.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난 여기서 10년을 살아왔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현재완료시제를 써야 해. have 다음에 과거분사를 쓰면 되지.



How long have you been beaten up by your boyfriend?

넌 남친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맞고 지내는 거야?



I have broken up with my babe.

나 결국 여친이랑 헤어졌어. (→그 결과 나는 더 이상 여친을 만나지 않아.)

Frankly, I have smoked marijuana before.

솔직히 전에 나 대마초 피 본 경험 있어.

That bald gentleman has already paid the bill.

저기 저 대머리 손님께서 벌써 계산을 끝내셨는데요.



현재완료시제와 함께 쓰면 안 되는 말이 있다던데요?



그렇다. 현재완료시제와는 상극으로 절대 같이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 늘 강조하지만 현재완료시제는 과거의 딱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딱 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들, 가령 last night이나 yesterday, two weeks ago 같은 말들이랑 같이 쓰면 정말 뽕뽕 맞은 문장이 된다.

My father has killed my puppy to invigorate his body this morning. (x)

→ this morning처럼 명확한 과거의 한 시점은 현재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My father killed my puppy to invigorate his body this morning. (o) 우리 아빠가 몸 보신한다고 오늘 아침 내 강아지를 잡으셨어.

And he has had "dog meat soup" for lunch at 12 o'clock. (x)

→ 12 o'clock도 과거의 정확한 한 시점이니 현재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And he had "dog meat soup" for lunch at 12 o'clock. (o)

그러곤 12시에 점심으로 보신탕을 드셨지.



어제 내가 술집에 도착했을 때, 남친은 이미 뺏어 있었어.
- 과거완료시제

과거라고 다 같은 과거가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일어났던 '신참 과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옛날에 일어난 '고참 과거'도 있다. 우리가 주말마다 쓰는 일상대화 한 마디를 보자.

When I arrived at the bar last night, he had already finished seven bottles of Soju.

어제 저녁 내가 술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내 남친은 소주를 일곱 병이나 먹은 상태였지.



이 문장에서 내가 어제 술집에 도착한 것은 분명히 '과거'이다. 그렇지만 남친이 소주를 일곱 병이나 마신 것은? 그렇다! 내가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의 과거다. 이런 **과거의 과거**를 **대과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 과거완료시제**로 표현하는데, 말만 복잡할 뿐 별거 없다. 현재완료시제가



<have + 과거분사>이므로, 과거완료시제는 <had + 과거분사>로 쓰면
오케이! 그리고 과거완료시제를 쓸 때에는 반드시 대과거를 '고참 과
거'로 만들어 주는 기준점인 '조금 이른 과거'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자!

When I arrived at the bar yesterday, he **had** already **passed out**.

어제 내가 술집에 도착했을 때, 내 남친은 이미 뺨어 있었지.

과거를 기준으로 더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 과거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had 라움에 과거분사를 써 주면 끝!



Before I met you, I **had gone out** with 12 different girlfriends.

나, 자기 만나기 전에 열두 명의 여자와 사귀었었어.

I smashed your face because you **had spit** on my shoe!

당신이 내 구두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당신 면상을 한 대 갈긴 거야.

Before he became an actor, Sean Connery **had worked** as a
truck driver. 배우가 되기 전, 쉰 코너리는 트럭 운전수였다.



내년쯤이면 나도 아빠가 되어 있겠지? - 미래완료시제

위의 글을 보고 뭐 느끼는 것 없나? 그렇다! 바로 '시간이 흘러 미래
가 되면 무언가 완료가 되어 있겠지.'라는 뉘앙스!! 그것이 바로 미래
완료다. 복잡하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도표를 가지고 외우려 들

지 말고, 내가 우리말로 예를 왕창 줄 테니까 그 예문으로 뉘앙스를
익혀 버리도록.

내 나이 서른쯤이면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어 있겠지.

아들아! 이 아빠가 독립운동을 하고 조국에 돌아올 때쯤이면 너도 다 커서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이따 7시쯤 내가 술집에 가면 애들은 다 술이 떡이 되어 뺨어 있겠지.

이런 말들이 바로 미래완료시제이다. 즉, 앞으로 언젠가 한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쯤 어떻게 되어 있겠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
키는 것이다.

현재완료시제를 만들었던 방법, 기억나나? 거기에 will만 붙여 <will
have + 과거분사>로 쓰면 미래완료시제가 된다. 이 책을 다 읽을 때
쯤이면 여러분도 영어의 도사가 되어 있겠지? 안 그래?



I will have become a father by next year.

내년쯤이면 나도 아빠가 되어 있겠지.

'~할 때쯤이면 ... 하게 되어 있겠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미래완료시제를 써. will have 다음에 과거분사를 쓰면 오케이!



I will have married seven times if I marry this time.

이번에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을 일곱 번 한 것이 되구나.

By the time I finish this book, I will have become
"the Master of English."

내가 이 책을 끝낼 때쯤이면 나도 '영어의 제왕'이 되어 있겠구나.

When the police arrive here, the hostages will have died
already!! 경찰이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인질들은 다 죽은 후일 것인데!!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현재완료시제 : 옛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제.
<have/has + 과거분사>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난 여기서 10년을 살아왔어.

과거완료시제 : 아주 옛날 과거부터 과거의 어느 한 시점까지의 시제.
<had + 과거분사>

Before I met you, I had gone out with 12 different
girlfriends. 널 만나기 전, 난 열두 명의 여자와 사귀었다.

미래완료시제 :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추측, 예언해 주
는 시제. <will have + 과거분사>

I will have become a father by next year.

내년쯤이면 나도 아빠가 되어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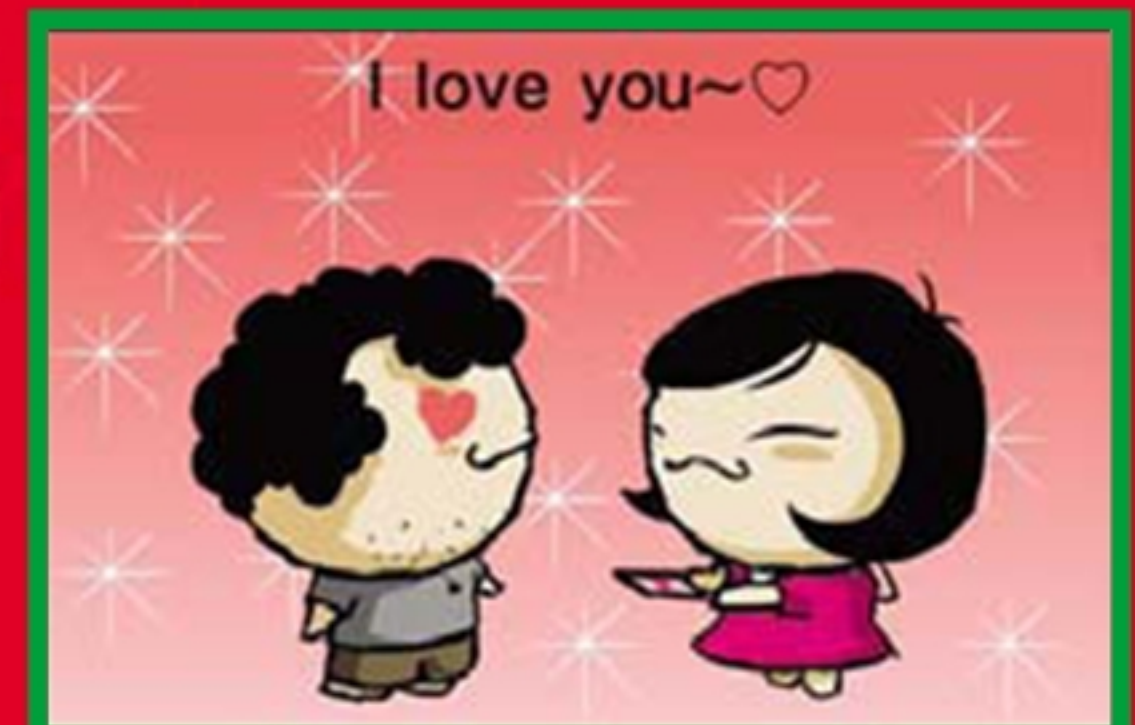
백수의 일상



과거완료



과거



현재완료



명사가 되어 버린 변절자 동사



이번에는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을 휩쓸면서 했던 ‘얼음 땡’ 놀이를 기억하나? 술래가 ‘땡!’ 하고 외치면 겁나게 도망 다니다가 갑자기 ‘얼음!’을 외치면 정말 얼어버린 것과 같이 ‘동작 그만!’ 상태가 되는 놀이 말이다. 그 놀이가 바로 동명사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노릇을 하는 동사**이다. 알다시피 동사는 마구 움직이는 품사고, 명사는 안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품사다. ‘달리다’라는 동사 앞에서 ‘얼음!’이라고 외쳐 확 얼려 버리면 ‘달리기’라는 명사가 되는 것이다. 또 ‘술을 마시다’라는 동사 앞에서 ‘얼음!’이라고 외치면 ‘동작 그만!’ 상태가 되면서 ‘술 마시기’라는 명사가 된다. 이렇게 **마구 움직이던 동사가 얼음처럼 굳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



현재



미래 완료



동명사는 **동사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든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하기**', '**~하는 것**'쯤이 된다. 꼭 기억하자.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로 변신했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한다. 기억하는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노릇을 하는 것은 명사 밖에 없다는 것을? **동명사 역시 명사이므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해가 안 된다면 재미있는 예문으로 연습해 보자. 앞에 두 문장은 동명사가 주어로, 뒤에 두 문장은 목적어로 쓰였다.

Drinking with you is always painful. 너랑 술 마시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워.

Marrying a rich girl is my entire life.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I enjoy forcing people to drink.

난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 먹이는 것을 좋아해.

My mom likes hen-pecking my dad.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바가지 긁는 것을 좋아하셔.



for, by 같은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면 무조건 동명사로 바꿔야 한다면서요?



캐! 이제 영어의 고수가 다 되었군. 아주 바람직하다. 자! 따라해 보자. for, by, about 같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만 올 수 있다!!! 앞에서 한 번 배웠는데 가물가물한가? 그럼 [Unit 3. 8품사]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 보도록. 그래서 Thank you for call.과 같은 문장을 쓰면 '난 영어 백치다.'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꼴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될까? 바로 call 뒤에 -ing를 붙여 Thank you for calling.(전화해 줘서 고마워.)이라고 하면 끝!

I'm in the mood for killing myself.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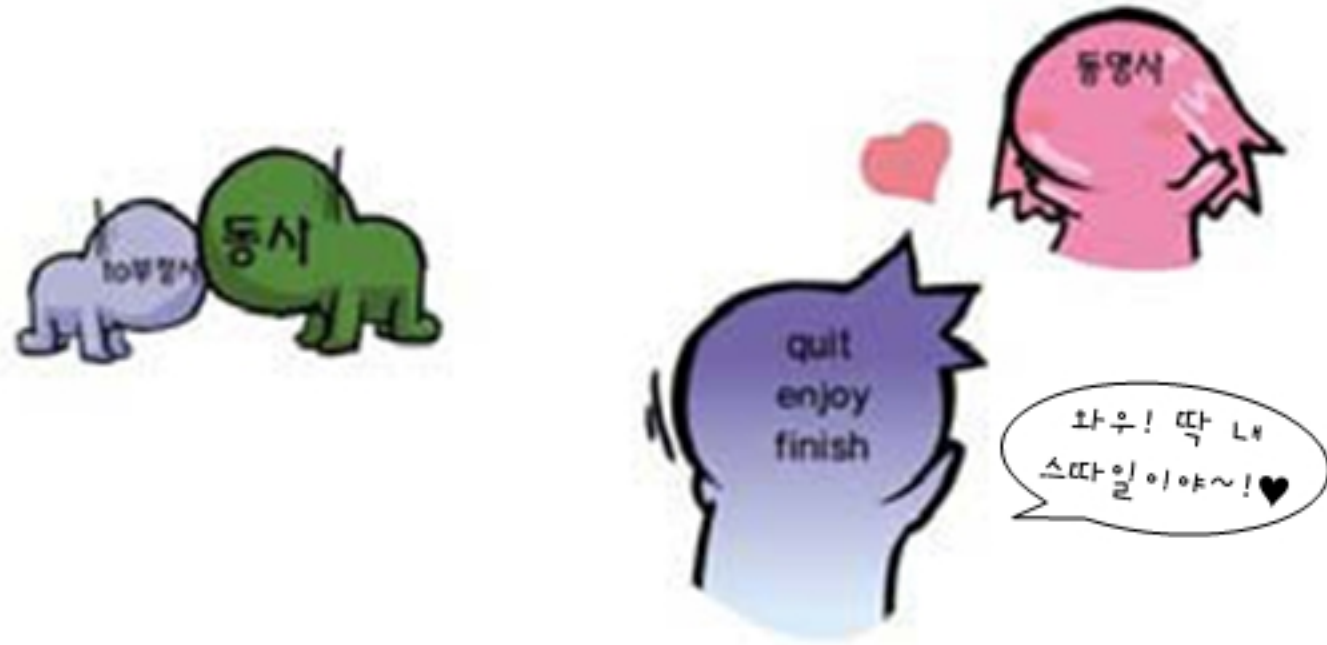


동명사, 넌 딱 내 스타일이야~~~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들 나시는지? 앞서서도 말했지만 동사가 -ing와 합쳐져서 동명사가 되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런데 타동사 중에서도 유독 동명사만 따르는 동사가 있으니 대표적인 놈들이 바로 **finish, enjoy, quit** 같은 것들이다. 이 녀석들은 **목적어로 명사와 동명사만을 허락**한다. 그래서 to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면 틀린 문장이 된다. 좀 어려운가?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예문을 자주 읽어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Finish taking a shower in ten seconds!! (o)

10초 내로 샤워하는 것을 끝마쳐라!!

Finish to take a show in ten seconds. (x)

I really enjoy whipping my husband. (o)

난 정말로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것을 좋아해요.

I really enjoy to whip my husband. (x)

You'd better quit smoking if you don't wanna die young. (o)

요절하기 싫으면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을걸.

You'd better quit to smoke if you don't wanna die young. (x)



stop은 smoking도 to smoke도 모두 목적어로 허락한다면서요?



아주 탁월한 질문을 하는군. 아마 학창시절 많이 배웠던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외우느라 정력 깨나 낭비했을 것이고. 하지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배워 볼까?

동사 중에는 stop처럼 뒤에 동명사와 to부정사가 모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to부정사는 동사의 목적어로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박쥐동사의 대표적인 예가 stop과 like이다. 무슨 말이나고? 예문을 통해 확실히 정복해 보자고.

I stopped smoking. 난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었다.(담배 끊었다.)

I stopped to smoke. 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I like drinking like crazy. 난 미친 듯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drink like crazy. 난 미친 듯이 술 마시고 싶어.(지금)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으면 '내가 담배 피우는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담배 피우는 것', '네가 술 마시는 것'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자. 우선 '담배 피우는 것'은 smoking. 그리고 그 앞에 '내가'라는 말을 넣기 위해 I를 넣으면 I smoking. 완성은 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표현이다. 왜냐고? smoking이라는 명사 앞에 대명사 I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을까? 동명사는 명사다. 명사 앞에 오는 대명사는 소유격인 my, your, our,



her, his 같은 것이 붙을 수가 있지. 안 그래? 따라서 my smoking, my drinking, your coming, his studying처럼 쓸 수도 있다는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담배 피우기', '나의 술 마시기', '너의 오기', '그의 공부하기' 같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영구와 맹칠이 같은 표현이 되니까 우리말로 간단히 '누가 ~하는 것'으로 옮기면 오케이!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 '내가 담배 피우는 것', '내가 술 마시는 것', '내가 오는 것', '그가 공부하는 것'. 흠, 훨씬 자연스럽군.

Do you mind my going out with your boyfriend?

넌 내가 니 남친이랑 사귀는 것을 꺼려하니?

I hate your calling me a "Big Head."

난 네가 나를 대갈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해.

Please, excuse my girlfriend's puking on your pants.

제 여친이 선생님 바지에 오바이트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I remember your drinking like a fish last night.

네가 어젯밤에 말술 퍼 마신 것이 기억난다.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동명사란 동사 뒤에 -ing를 붙여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이다.

1.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finish, enjoy, quit 등은 목적어로 동명사만 찾는다.
3.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므로 앞에는 소유격을 붙일 수 있다.

Unit 19. to부정사

뭐든 되어 주는 친절한 to부정사씨



학교 다닐 때 영어시간에 to부정사 얘기만 나오면 두통이 시작되었던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슨 놈의 용법은 그렇게도 많고 시험만 봤다 하면 빠지지 않고 나와 그렇게도 괴롭히는 지. to부정사는 문법을 공부하던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였다. 자, 그럼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인 to부정사의 실체를 까발려 보자. 사실 알고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동사는 8품사 중에서도 가장 욕심이 많은 품사다. 그러다 보니 문장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은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명사 노릇도 하고, 형용사 노릇도 하고, 심지어는 부사 노릇까지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동사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부정사. 부정사란 정해진 뚜렷한 역할이 없는 품사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처럼 쓰일 수 있는 마법의 품사를



말한다.

to부정사는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인 것으로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영어로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동사 앞에 to만 붙여 보자. 대충은 말이 다 되어 버린다.



To drink is the goal of my life.

술 마시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야.

to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의 역할을 하는 것. 영어회화가 잘 안 되면 이제부터 to부정사를 활용하자.



To drink is the goal of my life. 술 마시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야.

명사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있어?

형용사

I came here to drink. 나는 여기 술 마시려고 왔다고.

부사



동사, 명사로 변신하다!

우리는 벌써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처음 들어 본다고? 방금 전에 봤던 동명사, 기억나지 않나?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동명사도 있지만 to부정사 역시 가능하다. 즉, 동사원형 앞에 to만 붙여주면 명사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오케이!

동명사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 **to부정사** 역시 명사처럼 쓰일 때에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예문부터 세 번째 예문까지는 to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그리고 마지막 예문은 보어 역할을 한다.

To leave drinks unfinished is a sin.

술을 남기는 것은 죄악이다.

To study English is as fun as drinking.

영어 공부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처럼 재미있어.



To marry Hong Soo-A is impossible. 홍수아랑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y life goal is to develop an anti-balding vaccine.

내 인생의 목표는 항 대머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야.



동사, 형용사로 변신하다!

이번에도 문제 하나 낼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 바로 앞에서 배운 동명사도 기억 못 했는데, 훨씬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기는 어렵겠지? 동사를 형용사처럼 변신시켜 주는 방법에는 분사가 있다. 이제 기억 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Unit 9. 분사]를 찾아 보시길.

동사는 분사가 아닌 to부정사라는 탈을 써도 형용사로 변신할 수 있다. to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주로 **명사 뒤에서 앞의 명사를 꾸며 준다**. 따라서 우리말로는 ‘마셔야 할’, ‘죽여야 할’, ‘두들겨 패야 할’ 같이 ‘~할’로 해석하면 아주 멋진 해석이 된다!

It's time to kick some ass! Let's go!!

본때를 보여 줘야 할 시간이 왔어! 자, 가자고!!

Don't you have anything to do? Get lost!

넌 할 일도 없니? 좀 꺼져



Life is short. But there are so many girls to go out with.

인생은 짧다. 하지만 사귀어야 할 여자애들은 너무 많다.

You know you have some debt to pay off, right?

너, 갚아야 될 빚이 좀 있는 거 알지, 그치?



동사, 부사로 변신하다!

돌발퀴즈! 부사란 뭘까? 사과 이름이라고 생각한 당신, 잠시 책을 덮고 쉬었다 다시 해라.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 주는 품사**라고 이 책 처음에서 배웠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라. 동사가 to부정사의 탈을 쓰면 이런 부사의 노릇을 한다고 하니 정말 오지랖 한번 넓다.

to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다’ 이렇게 3가지 뜻으로 쓰인다. 너무 어렵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 예문으로 이해하자고.

I need to have a plastic surgery to get married.

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해.

I always work out to impress girls.

난 여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하지.



I feel so happy **to** peep into a lady's sauna.

여탕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He has drunk like a fish **to** have liver cancer.

그 자식, 알술을 퍼 마신 결과, 결국 간암에 걸렸어.



to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드디어 영어공부에 재미를 좀 느끼나 보네.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니, to부정사의 부정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비슷하다. to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만 넣어 주면 끝!

I told you **no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to부정사란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여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to부정사가 명사가 되면 :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문장 안에서 주어 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to부정사가 형용사가 되면 : '~할'로 해석한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to부정사가 부사가 되면 : '~하기 위해서'로 해석한다. 동사나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Unit 20. 수동태

항상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수동태



수동태가 뭔지 모르겠다고? 만드는 것도, 어떤 문법인지도 너무 어렵다고? 그렇다면 무조건 아래 그림만 기억해라. 이 그림에서 뽕수가 수동태, 다봉이가 능동태이다. 간단히 말해서 능동태 문장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고, 수동태 문장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능동태 = 주어가 가해자

수동태 = 주어가 피해자



즉, 수동태는 '주어가 무언가를 당하는 상태'란 말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I killed Steve.(나는 스티브를 죽였다.-능동태)라는 문장을 보자. I 라는 주어는 바로 '가해자'로 스티브를 죽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Steve was killed by me.(스티브는 나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다.-수동태)로 바꾸면 주어인 Steve는 바로 '피해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자. 수동태에서는 주어는 곧 '피해자'란 사실을!

Pok-Soo's asshole was poked by Da-Bong. 뽉수는 다봉에게 똥침을 당했다.

문장의 주어는 타하고 있으면 수동태 문장!!!



능동태 수동태로 만들 때는 <be + 과거분사>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I killed Steve.라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Steve was killed by me.가 된다. 어떻게 만든 걸까? 그렇다! 우선 목적어를 주어로 빼 버리면 수동태가 된다.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에게 당하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당하는 문장이 되니까.

그런 다음 동사는 <be + 과거분사> 공식에 따라 바꿔 주고, '~에게'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by만 붙여 주면 끝! 어렵다면 예문을 보면서 여러 번 따라 읽어 보라.

Steve beat the hell out of me. 스티브 자식, 날 개 패듯이 팼어.

☞ I was beaten the hell out of by Steve. 난 스티브한테 개 맞듯이 맞았다.

I dumped Jenny. 난 제니를 찼다.

☞ Jenny was dumped by me. 제니는 나한테 차였다.

You turned me on. 너는 나를 흥분시켰어.

☞ I was turned on by you.

나는 너 때문에 흥분되었어.

A sniper killed George. 저격수가 조지를 죽였다.

☞ George was killed by a sniper.

조지가 저격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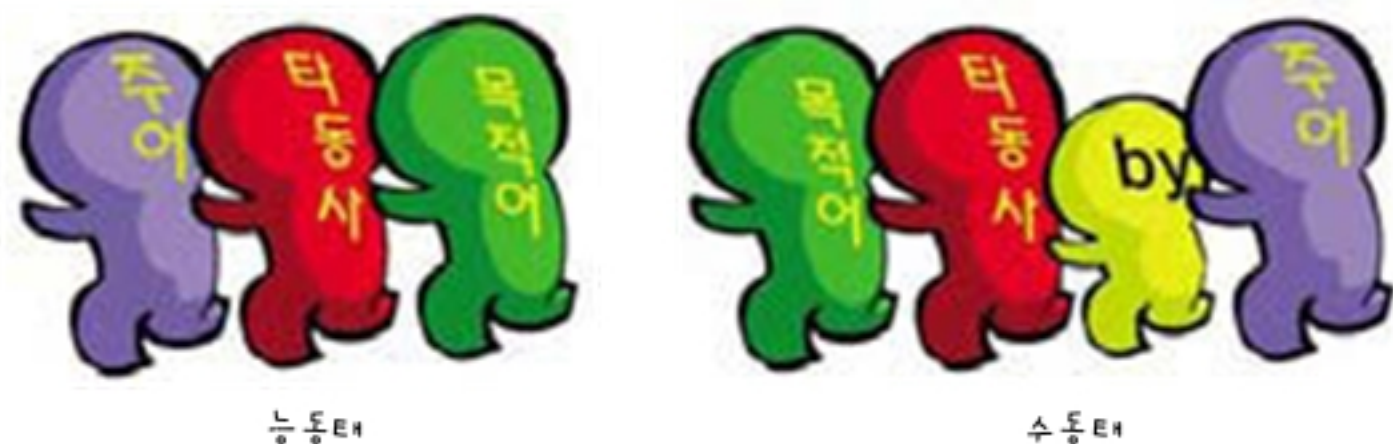
타동사만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수동태의 원리는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웬만해선 다 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수동태는 타동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I killed Steve.를 보자. 이 문장에서 '~을 죽이다'라는 뜻의 kill은 타동사. 다시 말해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동사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인 Steve(목적어)가 주어 가 되는 것이다. Steve was killed by me.(스티브는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처럼 말이다.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문장이다. 즉,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므로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는 당근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수동태의 핵심은 바로 행동을 '당하는' 목적어가 슈욱~ 문장 앞으로 날아가 주어가 되는 것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고 동태국이고 국물도 없을 것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동사 happen을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나한테 걸리면 복날에 개 맞듯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림짐작으로 의미가 수동태 같다고 해서 수동태로 모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심해라.



A car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A car accident was happened last night. (?)

→ 이런 영어 없음 수동의 의미라고 해도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단어가 있다.

Sun Kim rocks! 선킴 최고대!

..... is rocked by Sun Kim. (?)

→ 누구한테 선킴이 최고를 당했다는 거지?



아니,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인데도 수동태로 못 쓰는 희한한 동사들도 있다면서요?



참, 영어의 세계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꼭 이런 반항아들이 있다니까, become, have, meet 등이 그런 반항아 동사들이다. 아래의 예문을 꼭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영어 백치'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뭐... 이런 타동사들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

I have some cash. 난 돈이 좀 있어.

→ Some cash is had by me. (x)

I met your ex-wife. 내가 네 이혼한 옛 마누라를 만났지.

→ Your ex-wife was met by me. (x)



어??? by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수동태는 맨 뒤에 <by 누구누구> 해서 가해자를 꼭 밝혀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by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당하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어둠의 저편으로 숨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언제나. 가해자가 뻥이 좋은 경우? 돈이 많은 경우? 아니다. 바로 그 가해자가 불분명할 때나 불특정 다수일 때 그렇다.



'이런! 이 우유 상했어.'란 말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이 우유는 수많은 박테리아 또는 우유 속에서 자생한 세균에 의해 상했군.'이라고 말을 하진 않는다. 무엇에 의해서 상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이 그냥



상한 거니까. 영어로 말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가 불분명할 때는 그냥 **by** 이하를 생략해 버려라.

Adult toys should be sold to adults only.

성인용품은 성인들에게만 판매되어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잘 모른다.)

Shit! This milk is spoiled!

이런 XX! 이 우유 맛이 갔어! (→누구에 의해서? 잘 모른다.)

My dad was killed during the Gulf War.

우리 아빠는 걸프전 때 돌아가셨어. (→누구에 의해서? 잘 모른다.)

‘한국에선 한국말이 쓰여.’라는 말을 할 때 우리도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 쓰여.’라고 귀찮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굳이 안 써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 영어도 마찬가지다.

Kim Poong is called the “King of the Cartoon.” (by people)

김풍은 ‘만화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I was hurt during the school gangfight. (by other people)

나 학교 패싸움하다가 다쳤어. (→누구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Drunken English” was published in 1999. (by some publisher)

《술에 취한 영어》는 1999년에 출간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출판사에 의해서)



그럼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은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도 두 개가 되나?

예리하기가 거의 독일제 식칼보다도 더한 질문이군. 그렇다. 수동태의 핵심은 바로 당하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 그럼 **James gave me some cash.**(제임스는 나에게 현찰을 좀 줬지.)처럼 ‘나에게(간접목적어)’와 ‘현찰을(직접목적어)’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가 되나? 라는 의심은 영어공부에 조금이라도 심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었을 것이다. 정답은 주어를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각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각각 다른 문장을 두 개 만들 수 있다.**

James gave me some cash. 제임스는 나에게 현찰을 좀 줬다.

① **I was given some cash by James.** 난 제임스한테서 현찰을 좀 받았다.

② **Some cash was given to me by James.**

현찰이 제임스에 의해 나한테 주어졌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만들면 문장이 두 개나 나와. 꼭 기억해 두.



I told you that!! 내가 너한테 그 얘기 했잖아!!

① ②

① **You were told that by me!!** 너 그 얘기 나한테 들었잖아!!

② **That was told to you by me!!** 그 얘긴 나에 의해 너한테 전해졌잖아!!



Jenny showed me her ass. 제니가 자기 엉덩이를 나한테 보여 줬다.

① ②

① I was shown her ass by Jenny. 나, 제니 엉덩이를 봤어.

② Her ass was shown to me by Jenny.

제니의 엉덩이는 제니에 의해 나에게 보여졌어.



선생님 우리말로는 '책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This book sells well.이라고 표현하던데. 책이 자기를 파는 게 아니라면 틀린 문장 아닌가요?



당연히 영어의 '정체성'이 흔들렸겠지. 이해해. 원래 우리가 배운 뉘앙스로는 분명 This book is sold well.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이런 건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진 것들이야. 그냥 때려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이런 예를 한 개만 더 볼까?

This chicken's skin **peels** well. 이 닭 껍질 정말 잘 벗겨지네.
This chicken's skin is **peeled** well. (x)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수동태 문장이란 문장의 주어가 당하는 문장을 말한다.

능동태 : <주어+동사+목적어>

수동태 : <주어(목적어가 변한 것)+be+과거분사+by 목적격(주어가 변한 것)>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by 이하를 생략할 수 있다.

Unit 21. 가정법

고통스런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아편, 가정법



자, 지금부터 다음 말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라. '내가 김태희의 남친이었다면...', '내 얼굴이 CD로 가려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가슴 아프지만 택도 없는 소리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라는 법은 없다! 가정과 상상 속에서라도 김태희의 남친이 되어 봐야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법**이다.

CD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학창시절 영어시간에 가정법을 뭐라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현실과 정반대의, 턱도 없는 얘기를 말하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처럼 실제로는 폐차장에서 차 부수는 일을 하지만 골프를 친다고 말하는 방법이 바로 가정법인 것이다.



 김태희가 내 여친이었으면 좋겠다. -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가정법 현재

‘만약에 ~라면, ...일텐데’라고 **지금 바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쓴다. 물론 이 문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쓴다. 그런데 여기서 골 때리는 부분이 나온다. 바라는 시점은 ‘지금’인데 동사의 시제는 ‘과거’로 써 줘야 한다는 것. 무슨 말이나고? 다음 예문을 보자.

If Kim Tae-Hee **were** my girlfriend, my life **would be** better than this. 김태희가 내 여친이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가정법 현재 문장이다. 분명히 지금 현재 ‘김태희가 여친이기’를 바라는 문장이지만 동사는 **were**라는 과거시제가 쓰였다. 우리말로 따져 봐도 ‘여친이라면’이 아니라 ‘여친이었다면’이라고 과거로 말하지 않는가?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많은 예문을 읽고 이해하면서 배워 가길. 가정법 현재를 만드는 방법은 **<If+주어+과거동사, 주어+would/should/could/might+동사원형>**이다.



If I **had** thick hair, I **could go out** with prettier girls.

내가 머리숱만 조금 더 많았어도 더 예쁜 애들이랑 사귄 수 있을 텐데.

❖ Because I **don't** have thick hair, I **can not go out** with prettier girls. 지금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난 더 예쁜 애들이랑 사귄 수 없다.

If I **were** a little bit fatter, I **could be exempted** from the army.

내가 조금 더 살이 찼어도 군대를 면제 받는 건데.

❖ Because I'm **not** fatter, I **can not be exempted** from the army.

난 살이 더 안 찌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없다.



If I were a little younger, I could drink more.

내가 조금만 더 어렸어도 술을 더 마시는 건데.

❶ Because I'm not younger, I can not drink more.

난 더 이상 어리지 않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마신다.



가정법 현재를 쓸 때 if절에 be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were라면서요?



아주 현명한 질문! 이렇게 가정법에서 if절에 be동사가 오면 인칭이나 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were를 써야 해. 이유는 묻지 마. 언어는 약속이라고 말했지?!

If she were my girlfriend, I would ask her to quit smoking.

그 기집애가 내 여친이라면, 담배 끊으라고 말할 텐데.

→ Because she is not my girlfriend, I will not ask her to quit smoking. 개는 내 여친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말 못해.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말할 땐 가정법 과거

‘그때 ~했었더라면’이라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만 하는 것처럼 한심한 노릇도 없다. 이미 었질러진 물을 보며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여간 이런 한심한 후회도 못하게 하면 억울하다고 할까 봐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만약 ~했더라면, ...했을 텐데’의 가정법 과거.

이처럼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를 말할 때에는 가정법 과거

를 쓴다.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방법은 <If+ 주어+had+과거분사, 주어+would/should/could/might+have+과거분사>이다. 여기서 조동사가 어떤 것이 쓰였느냐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진다.

would have 과거분사 : ~했을 텐데

should have 과거분사 : ~했어야 했다(그런데 안 했다)

could have 과거분사 : ~할 수도 있었다

might have 과거분사 : ~했을지도 모른다



If I had had more money, I would not have married my wife.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어도, 와이프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으이구, 이 웬수!)

❶ Because I didn't have more money, I had to marry my wife.

내가 그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와이프랑 결혼했어야 했어.

If I had hit you a little bit harder, I could have killed you.

내가 조금만 더 세게 널 쳤다면, 널 죽여 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❶ Because I didn't hit you harder, I could not kill you.

내가 널 더 세게 안 쳤기 때문에 널 죽일 수가 없었어.





아니, if가 없는 가정법도 있어요?



아해 그건 I wish~로 시작하는 간단한 가정법인데 알아 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 특히 앞서 설명한 복잡한 문장공식을 쓰기 싫은 귀찮은 우리 폐인들에게 아주 딱이다!

〈I wish + 주어 + 과거동사〉 :
~라면 참 좋을 텐데 (가정법 과거)

I wish I had longer legs.

다리가 좀더 길었으면 참 좋을 텐데.

→ I am sorry I don't have longer legs.

내 다리가 길지 못해서 안타깝다.



〈I wish + 주어 + had + 과거분사〉 : ~라면 참 좋았을걸 (가정법 과거완료)

I wish I had lost weight when I had chance.

기회 있을 때 살이나 좀 빼 둘걸.

→ I am sorry I didn't lose weight when I had chance.

기회가 있을 때 살을 빼 두지 않아 아쉽다.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가정법 현재 :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할 때.

〈If + 주어 + 과거동사, 주어 + would/should/could/might +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할 때.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주어 + would/should/could/might + have + 과거분사〉





Part 4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자!

Unit 22.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Unit 23.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Unit 24. 접속사

Unit 25. 관계사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우선, 전치사가 무얼까? 뭐? 전치사는 ‘전치 몇 주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사(死)’했다는 말이라고? 정말 ‘전치사’ 당하고 싶나? 농담 그만하고 내 말 잘 들어 봐. 영어의 전치사는 종류도 많고, 또 전치사 하나에 뜻도 여러 개라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저기 테이블 위에 컵이 있다.’는 말을 영작해 보자. ‘컵’은 cup, ‘테이블’은 table, ‘있다’는 be동사 is... 그러면 대충 A cup is the table. 이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 문장으로는 컵이 테이블에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예문대로 만들려면 ‘위’라는 위치를 나타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필요한 단어가 바로 on. 복잡한 생각을 안 하더라도 on이 ‘~ 위에’라는 뜻이라는 건 알겠지? 이런 품사를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다. 어때? 간단하지? 전치사는 on the table처럼 명사 앞에 붙어서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을 표현해 준다.

A cup is **on** the table. 컵은 테이블 위에 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을 표현해 주는 거야. 시간이나 장소, 방법에 대해 말할 때는 전치사를 잘 썼는지 주의하도록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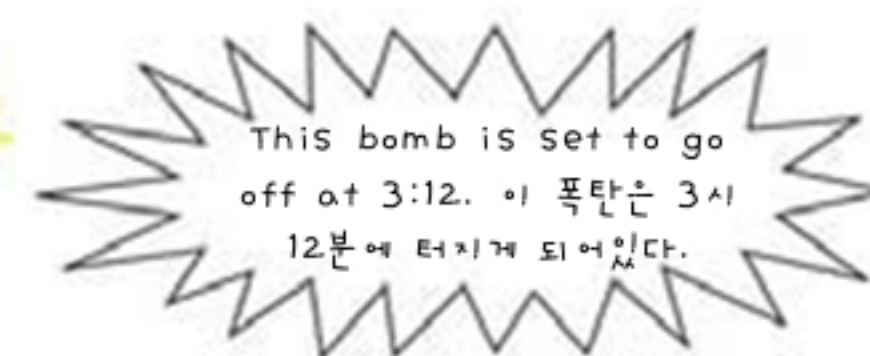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로는 at, in, on 등이 있다. 우리말로 ‘몇 시에’, ‘몇 년도에’, ‘몇 시까지’라고 말할 때 쓰는 ‘~에’, ‘~까지’ 등이 영어에서는 전치사로 쓰이는 것이다.



‘꼭’ 찍은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

전치사 at은 시계에서 한 지점을 ‘꼭’ 찍어낸 것처럼 아주 짧고도 정확한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 분, 초 단위는 at을 쓴다.



He came **at eight thirty**. 그 자식 8시 반에 왔어.

This bomb is set to go off **at 3:12**. 이 폭탄은 3시 12분에 터지게 되어 있다.



Dracula usually starts working at midnight.

드라큘라는 주로 자정에 업무를 시작해.



예문에 보니까 night도 앞에 at을 붙여 at night이라고 쓰셨잖아요. night은 긴 시간으로 짧고 정확한 한 시점이 아니지 않나요?



혹시 밤에 주로 활동하는 '어둠의 자식'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잔다.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활동이 별로 없는 '밤(night)'을 시간 단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한 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at night이라고 쓰는 거대! 오케이?

Dracula doesn't sleep at night. 드라큘라는 밤에 잠을 안 자요.



쭙 긴 시간은 in

전치사 in은 다소 긴 시간대를 나타낸다. 그래서 주로 년, 월, 오전, 오후, 저녁 등을 표현할 때 쓴다. 예를 들어 '8월 중'이라는 시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든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긴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 in을 이용해 in August라고 표현한다.



I can't wake up in the morning! I'm a night person!

난 아침에 못 일어난단 말이야! 난 어둠의 자식이라고!

I was born in July in 1980. 난 1980년 7월에 태어났어.

What?? They got married in March, and divorced in April???

뭐?? 개네들 3월에 결혼해서 4월에 이혼했다고???



at과 in의 중간 시간에는 on

at을 쓰기엔 시간 범위가 길고 in을 쓰기엔 기간이 짧은 어정쩡한 시간대에는 전치사 on을 써서 말한다. 주로 딱 하루 단위, 즉 요일 또는 7월 10일처럼 날짜에 많이 쓴다.



What are you doing on Friday? 금요일에 뭐 하니?

Sun Kim was born on July 10th. We have to remember the date! 선김은 7월 10일생이야.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억해야 해



I had a blind date on Sunday. But my partner was so homely.

나 일요일에 소개팅 했는데, 파트너 정말 안타깝게 생겼더라. (*homely : 매우 못생긴)



‘~까지’라는 의미의 전치사 by와 until의 차이는 뭔가요?



둘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까지’이지만 영어에선 뉘앙스가 좀 다르다. until은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쓰이고, by는 ‘목표나 결과에 중점을 둘 때’ 쓰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좋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지.

Wait here until 5. (5시까지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5시까지 계속 wait하는 상태로 있으라는 뜻이다. 즉, until 때문에 계속되는 느낌이 강조된다. 그런 반면에 Come back here by 5. (5시까지 여기로 올게.)라고 하면 여기서 기다리든지, 다른 곳에 가서 놀다 오든지 5시까지만 돌아오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즉, by는 어떤 행동의 목표점이나 결과를 강조한다는 말씀!

He kept drinking until this morning, and got a heart attack.

그 자식 오늘 아침까지 술 퍼 마시다 심장마비 걸렸어. (계속 술 마신 걸 강조)

I have to get married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가가야 돼.

(무슨 짓을 하든 올해 말까지만 결혼하면 된다는 뜻)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at, in, on

at : ‘꼭’ 찍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 - 시, 분, 초

in : 좀 긴 시간 - 년, 월, 오전, 오후, 저녁

on : 딱 하루 동안의 시간 - 요일, 날짜

Unit 23.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원하는 장소에 가려면 전치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전치사는 방향이나 위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외워서는 안 된다. 일례로 to나 toward를 학교에서는 ‘~를 향한’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엔 커다란 뉘앙스 차이가 있다.

to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하고, toward는 ‘**막연하게 그 근처로 전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뉘앙스 차이가 있는 두 전치사를 마구잡이로 외워 버리면 막상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책을 덮고 눈을 감은 뒤 그 전치사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위치, 또는 특정 시간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미묘한 뉘앙스를 온몸으로 느껴 보자.



한 지점을 딱 찍어서 나타낼 때는 at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서도 봤듯이 **at**은 정확한 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위치를 나타낼 때에도 한 지점을 딱 찍어 **아주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은 '특정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앞에는 다 **at**을 쓴다.



We can't smoke or drink at school. 학교에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셔.

Jennifer says she works at the airport.

제니퍼가 그러는데 자기는 공항에서 일한대.

I live at Kangnam Police Station. I'm behind bars.

나 강남 경찰서에서 살아. 구속됐거든.

'안'을 뜻하는 내밀한 전치사 in

느낌상 **at**보다는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을 말할 때, 혹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in**을 쓴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 앞에는 **in**이 붙는다.



Yon-Sama is very famous in Japan.

온사마가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좋대.

I was born in Seoul, but was raised in New York.

난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긴 뉴욕에서 자랐어.

You studied in America. But why can't you speak any English?

너 미국에서 공부했다면서, 근데 왜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해?



'학교에서'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at school**을 쓰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라고 표현할 때는 **in the classroom**이라고 쓰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학교보다 더 작은 교실에 왜 **in**을 쓰고 난리입니까?



그건 '교실 안'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의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을 쓴다.

Mr. Smith was found dead in his office.

스미스 씨가 사무실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소.

딱 붙는 접착 전치사 on

전치사 on 하면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이 ‘~ 위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인 것이다. 접착 전치사인 on 은 ‘~ 위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 위에’는 on의 여러 가지 쓰임새 중 하나에 불과하다.

A cup is on the table.에서 on은 분명 ‘~ 위에’라는 뜻이었다. 그럼 예를 들어 정전기 때문에 종이 조각이 옷소매 ‘밑’에 붙어 버렸다 치자. 이런 경우 미국 애들은 A piece of paper is hanging on your sleeve.라고 해서 on을 쓴다. ‘밑’에 붙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on 은 ‘~ 위에’라는 뜻을 포함해 표면에 달라 붙어 있는 접착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것이다.



Don't paint graffiti on the wall! 벽에 낙서 좀 하지 마!

Someone peed on the floor. 어떤 새끼가 마룻바닥 위에 오줌을 싸구만.

Look! A fly is sitting on the ceiling. Let's catch it and eat!

저것 봐!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 잡아서 먹자!

내 곁에 있어줘 전치사 by

팝송 ‘Stand by your man’을 기억하는가? ‘네 남자 곁에 있으라.’ 즉, 남친이 힘들어 하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남친 옆에서 힘이 되어 주라는 교훈이 담긴 노래다. by는 이처럼 ‘~의 옆’에 항상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전치사다. 이제 우리는 I don't understand why they opened the pet shop by the boshin-tang place.(왜 보신탕 집 옆에 애완동물 센터를 열었는지 이해가 안 가.)라는 문장도 가뿐하게 만들 수 있다.



Look at the girl by James!

제임스 옆에 있는 저 여자에 좀 봐!

When I'm gone, bury me by my late mother.

나 죽으면 돌아가신 엄마 옆에 날 묻어 줘.

It's a wonderful idea to open a motel by the university.

그 대학 옆에 모텔을 연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



by가 '~의 옆에'라는 뜻 말고 '~에 의해'라는 뜻도 있잖아요?



by는 I came here by bus.(나 버스로 여기에 왔어.)와 같이 '~에 의해', '~으로'라는 '수단과 방법'의 뜻을 가지는 전치사로도 쓰인다. 앞으로 계속 그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영어를 정복해 보도록.

James was killed by a kitchen knife.

제임스는 식칼로 살해당했어.

I think it's faster to come here by subway.

여긴 지하철로 타고 오는 게 더 빠를걸.



아래로 위로 전치사, above와 under 그리고 below

간단히 말해서 above는 위쪽을 나타내고 under와 below는 둘 다 아래쪽을 나타낸다. 어떤 '심하게 학구파인 척하는' 사람들은 under와 below 사이에 미묘한 뜻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계란과 달걀의 차이를 알아내려고 끔뎁대는 것과 같다. under와 below는 둘 다 똑같이 '아래'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만 알아 두면 충분하다.



Children above apartment make noise all the time.

It drives me crazy!

우리 아파트 윗층 아이들이 온종일 쿵쿵거려서 정말 돌아가실 지경이야!

Oh, my God! There is a cockroach under the table!

까악! 탁자 밑에 바퀴벌레가 있어!

I'm selling these below cost!! 자, 떨이요, 떨이! 원가 이하로 팝니다!!



전치사계의 반대 along

남의 뒷꿈무니에 빌붙어 따라가는 것의 선수가 바로 along이다. 말 그대로 옆에 착 달라붙어 졸졸 따라가는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와 같이', '함께'라는 뜻으로 along with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Bring him along with you! 너 여기 올 때 그 새끼 같이 데려 와!

If you buy this limousine, a female driver comes along with it.

이 리무진을 사시면 여기서가 함께 세트에 따라 나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는 to,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at

to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 나타낸다. 직선 화살표를 머릿 속에 상상해 보라. 그 끝이 바로 to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다. 하지만 to보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는 것, 꼭 기억해 둘 것!



Watch out! There is a bulldog rushing to you!

조심해! 불독 한 마리가 너한테로 달려가고 있어!

Are you laughing at me? If you are, you are dead.

너 지금 나한테 깔깔거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넌 죽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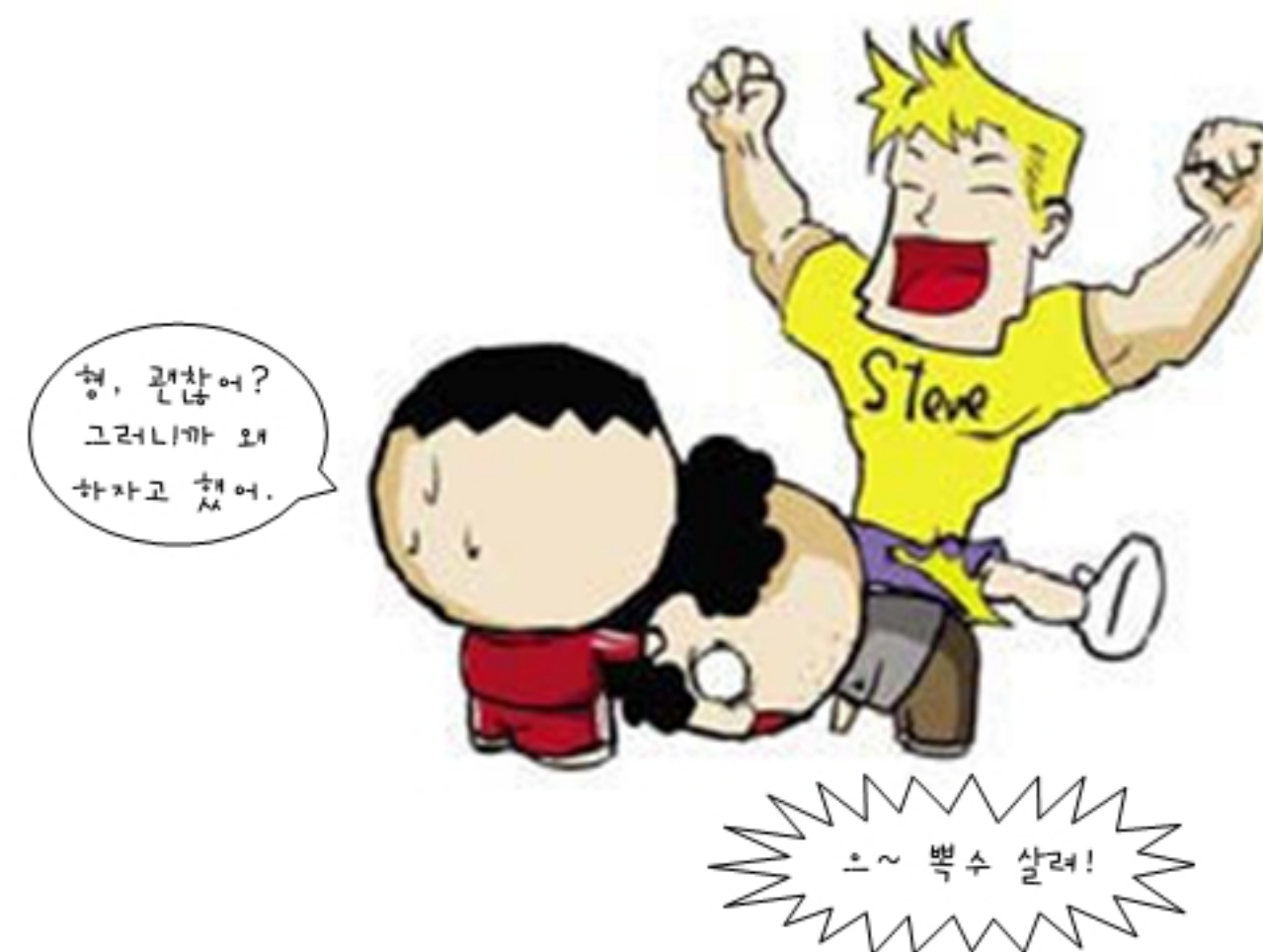
Steve threw a stone to the principal's office, specifically throwing at the principal's head.

스티브 자식, 교장실에 돌 던졌어. 구체적으로는 교장 대가리를 겨누었지.



달려와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into, 달려와서 위에 툭씩 올라갈 때는 onto

추운 겨울, 집에 돌아와 덜덜 떨면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into다. 말 그대로 어딘가를 향해 달려와서(to) 쏙 들어가는(in) 것. 반면 onto는 '말뚝 박기'를 하면서 뒤에서 달려와 대가리를 박고 있는 친구의 등판에 확 뛰어올라 앉아 버리는 느낌이다. 달려와서(to) 어디의 위에(on) 툭씩 올라가는 것.



Someone sneaked into my house.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몰래 기어 들어왔어.

Steve fell onto Jenny. 스티브는 제니를 덮쳤다.

James jumped onto my back, and broke my backbone.

스티브 자식이 달려와 내 등에 탔는데, 그만 척추가 나갔지 뭐야.





펼쩍 뛰어 건너가는 것은 **over**, 그냥 밟고 건너가는 것은

across

어젯밤 폭우가 쏟아져 집 앞에 개울이 생겨 버렸다. 그런데 어제 새로 산 신발을 더럽히기가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있는 힘을 다해 펼쳐 뛰어 개울을 건너야겠지? 그것이 **over**다. 하지만 점프하기 귀찮아 그냥 물살을 가르고 지나갔다면 그것이 바로 **across**다.

길을 건다가 똥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은 **over**하겠나, 아니면 **across**하겠나? 일반적으로 제 정신이면 **over**하겠지.



There is a dog shit. Let's jump **over** it!

개똥이대! 펼쳐 점프하자!

Steve was hit by a dump truck running **across** an 8-lane road.

스티브 자식, 8차선 도로를 달려 건너다가 그만 덤프트럭에 치이고 말았어.

Can you swim **across** the Han River for me?

날 위해서 한강을 헤엄쳐 건너 줄 수 있어?

이것만은 꼭 알아두셈!!



at : 아주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은 특정 부분.

in : 넓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 도시 이름, 나라 이름

on : 표면에 달라 붙어 있을 때.

by : 옆에 있을 때.

above : 위쪽

under, below : 아래쪽

along : 줄줄 따라다닐 때.
- along with(~와 같이)의 형태로 많이 쓰임.

to :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갈 때.

at :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갈 때.

into : 달려와서 안으로 들어갈 때.

onto : 달려와서 위에 털썩 올라갈 때.

over : 펼쳐 뛰어 건너가는 것.

across : 그냥 밟고 건너가는 것.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엮는 영어계의 중매쟁이!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요즘, ‘접속’이라는 단어는 ‘원샷’, ‘파도타기’와 더불어 우리네 생활의 필수단어가 되어 버렸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다’, ‘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다’ 등 이렇게 ‘접속’이 우리에게 친숙해져 버린 오늘날, 우리는 영어의 ‘접속사’와 얼마나 친숙할까? 불행히도 길거리를 걸어가다 아무나 붙잡고 “접속사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And, But, Or...”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분, because와 when도 접속사라는 걸 아시나? 몰랐다고? 그럼 여러분도 접속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접속사가 어려운 품사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물로 볼 정도로 쉬운 품사도 아니다. **접속사**란 간단히 말해서 **말과 말을 서로 연결해 주는 품사**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and나 but 같은 것은 서로 동등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 주는 등위접속사란 놈들인데, 우리 폐인가족은 그 단계를 넘어 because, when 같은 것들도 접속사라는 사실을 한번 배워 보자고, 오케이?



엮을 때 엮더라도 평등하게 엮는다! - 등위접속사

스티브와(and) 나는 술집에 갔다. 그러나(but) 술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니면(or) 우리가 술집을 잘못 찾아 온 것일까?

and, but 그리고 or의 공통점은 뭘까? 뭐? 가장 쉬운 접속사라고?!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가만히 and, but, or가 들어 있는 문장을 분석해 보자. <A and B>, <A but B>와 같은 구조를 보면 A와 B가 동등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나 하면 A가 단어면 B도 단어, A가 구이면 B도 구, A가 문장이면 B도 문장 이런 식으로 서로 동등한 것들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다. 즉 A와 B, 양쪽의 무게

가 똑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A, B 양쪽 똑같은 존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등위접속사**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and, but, or**이다.

First, I crushed his skull and poked his eyeballs.

먼저, 그 자식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눈알을 뽑았어.

Would you prefer hanging or execution by shooting?

교수형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총살을 해 드릴까요?

and가 우리말로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하지만 **〈명령문 + and + 문장〉**은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건 모르는 삼척동자들도 좀 있을 것이다. 어라? 설마 우리 폐인가족 중에 명령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기분이다. 보너스로 간단하게 명령문 개념까지 끝내 주겠다!

명령문이란 **‘동사원형으로 바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한다. 앞의 주어 가 생략이 된다는 말이지. 어떤 사람은 ‘꺼져!’라고 명령할 때도 **You go away!**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You**란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Go away!**라고 해야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지? 기억하자. **명령어는 주어를 생략한다!**

(You will) Finish this drink and I will kiss you!!

이 잔 원샷 해. 그러면 내가 뽀뽀해 줄게!!



but이 우리말로 **‘그러나’**라는 건 영어학원 근처에서 3년 산 개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not A but B〉**가 **‘A가 아니라 B다’**라는 건 영어학원 근처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인간이 있다.

James is not just a mere fool but a hardcore bonehead.

스티브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돌대가리아.

I hate you but I like your money. 난 네가 싫지만 네 돈은 좋아.



or가 우리말로 **‘또는’, ‘아니면’**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접속사인 것은 학창시절 영어수업을 들은 인간이라면 다 안다.

Was he born stupid or was there some kind of an accident?

그 자식 원래 바보야,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거야?

Which one would you like to choose, a metal ax, a silver ax, or a gold ax?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아니면 쇠도끼를 줄까?



하지만 <명령어+or+문장>이 ‘~해라. 안 그러면 ...한다’라는 뜻이라
는 건 대학을 졸업해도 모르는 인간들이 깔렸다.

Finish your drink or I will kill you!!!

이 술 빨리 원샷 해! 안 그러면 확 죽여버린다!!!



단어나 문장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연결하려면 A and B
and C and D 같이 계속 쓰면 되나요?



그러면 연결해 줘야 하는 단어가 10개라면 접속사를 9개 써 줘야 한다는 얘기인
데, 그럼 문장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세 개 이상을 접속사로 연결할 때는 맨
마지막에만 접속사를 붙여 주면 된다. 괜히 접속사 다 붙이느라 힘 빠지 말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 우아하게 말하도록.

I used to go out with James, Steve, Paul and Peter.

난 한때 제임스, 스티브, 폴, 그리고 피터랑 사귀 적이 있어.

Who ate my dog, you, Steve, Paul or James?!!

누가 우리집 강아지를 먹었어, 너야? 스티브야? 폴이야? 아니면 제임스야?!!



평등하지 않아도 옆이면 좋아 - 종속접속사

‘난 열네 살 때 술을 처음 배웠어’(I started drinking first when I
was 14.)라는 당연한 문장을 보자. 여기서 ‘~했을 때’라는 when도
접속사라고 내가 말했지? 이런 접속사를 **종속접속사**라고 하는데 한

문장을 다른 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접속사라서 그렇게 부
른단다. ‘종속’이란 어딘가에 달려 있다는 얘기. 이런 접속사들에는
when, because, before, after, though 등이 있다.

I started drinking first when I was 14.

주절

종속절

난 열네 살 때 술을 처음 배웠어.

when, because, before, after, though 등을 종속접속사라고
하는데 다른 문장에 종속해 연결해 주는 접속사를 말해.



Because I'm the eldest son, Jenny said she couldn't marry me.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니는 나랑 결혼 못 하겠대.

Drink this whole bottle of Soju before you go swimming.

수영 가기 전에 이 소주 한 병 다 마시고 가.

Though I'm bald, I managed to marry a Miss Korea.

내가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난 결국 미스 코리아와의 결혼에 성공했지.

이것만은 **꼭** ~
알아 두셈!!



현재진행시제 : 지금 한창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하고 있어’,
‘~하는 중이야’라고 해석된다. <be동사+-ing>

과거진행시제 : 방금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행적을 말할 때 쓰
는 시제. ‘~하고 있었어’로 해석된다. <was/were+-ing>

미래진행시제 :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말할 때 쓰는 시제. ‘~하고 있
을 거야’로 해석된다. <will be +-ing>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



관계사라고 하면 학창시절 맨날 틀렸던 문법 분야 중 하나라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으로 공부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말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친구 하나가 있다. 그 친구는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 그 여자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버드는 미국 최고의 학교이다. 미국은 캐나다 바로 밑에 있다. 캐나다에는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바글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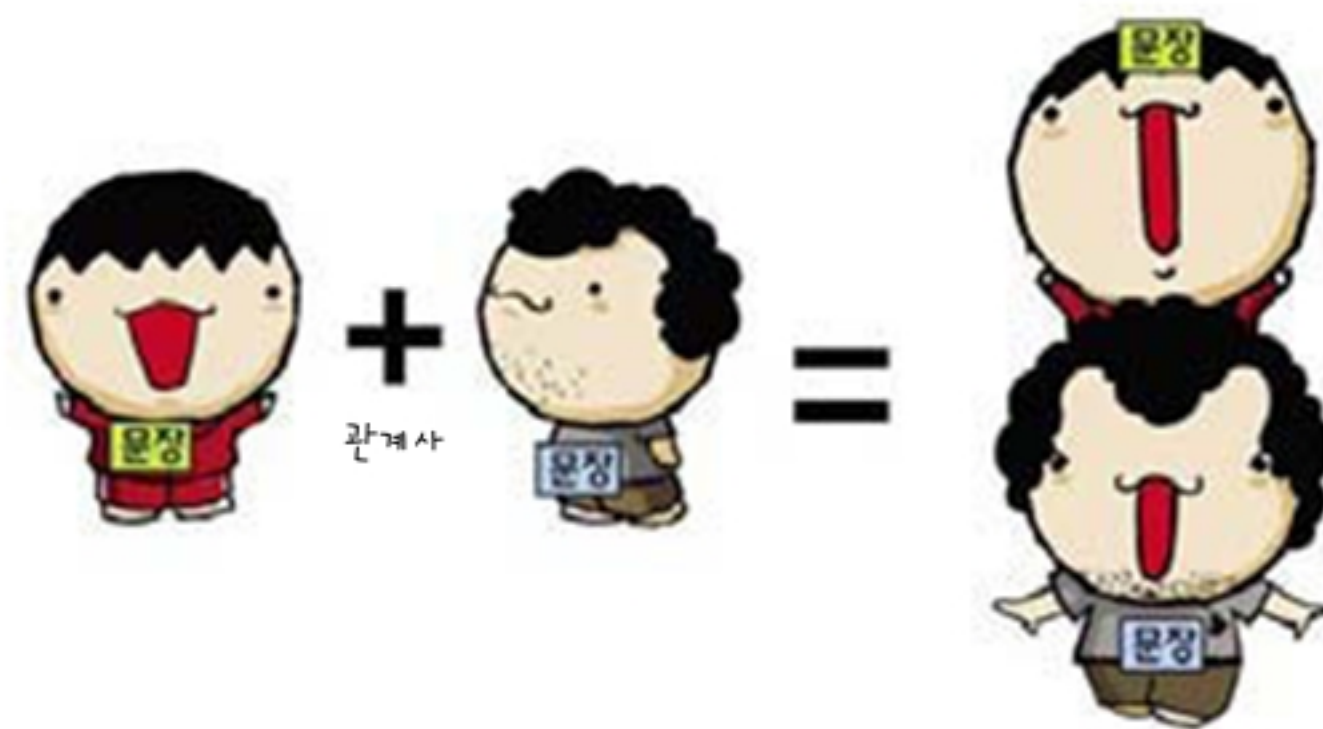
제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문장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들이 모두 따로 떨어져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방법은 최대한 짧고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바글거리는 캐나다는 미국 바로 위에 있는데, 그 미국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를 졸업한 한 돈 많은 여자랑 내 친구가 결혼을 했어.

위와 같이 문장들을 연결시키니 상당히 스무스하고 판타스틱한 문장이 되었다.

이렇게 따로 노는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바로 관계사이다. 다시 말해 세련된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끝! 관계사는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뉜다. 그럼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 볼까?





명사의 탈을 쓴 접속사, 관계대명사

‘난 한 남자를 사랑해.(I love a man.)’, ‘그 남자는 바로 네 남자친구야!!(He is your boyfriend!!)’라는 가슴 저린 문장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관계사가 있으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난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 남자친구야!(I love a man who is your boyfriend!)’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합쳐진 문장의 **who**처럼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 주면서 뒷문장의 원래 주어 대신에 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뒷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앞 문장의 단어를 **선행사**라고 한다. 위의 경우는 a man이 선행사겠지. 그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물건이면 which 또는 that**을 쓴다. 그리고 해석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하는 것이 편하다. ‘난 너의 남자친구인 한 남자를 사랑해.’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네 남자친구야.’라는 식으로 말이다.

I love a man who is your boyfriend.

선행사 관계대명사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네 남자친구야.

두 문장을 세련되게 하나로 합쳐 주고 싶다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봐. who나 which, that 중에서 골라 사용하면 끝.



I hate Steve! + He always picks his nose!

= I hate Steve **who** always picks his nose!

나 스티브 정말 싫어. 맨날 코딱지나 파고 다니는 자식!

I want to marry a man. + He is rich and will die soon.

= I want to marry a man **who** is rich and will die soon.

난 결혼할래. 돈많고 일찍 죽을 남자랑 말아야.

I bought a used car. + That car is a piece of shit!!

= I bought a used car **which** is a piece of shit!!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 아 글썄 그 차가 똥차지 뭐야!!

Look at that pigeon! + It is as fat as a chicken!

= Look at that pigeon **which(that)** is as fat as a chicken!

저기 비둘기 좀 봐. 닭만큼 똥똥해!



관계대명사 **that**을 사물 말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면서요?



흠. 사실이다. 관계대명사 **that**은 관계대명사계의 박쥐 같은 존재로 사람에게도 붙었다, 사물에게도 붙었다 하는 놀이거든. 원래는 사물에게만 써야 하는데 사람을 꾸며 줄 때도 쓰인다. 다시 말해서 선행사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써도 된다는 얘기. 혹시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that**을 쓰면 오케이.

I had a fight with a man. + He was as big as Choi Hong-Man.

= I had a fight with a man **that** was as big as Choi Hong-Man.

난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이 최홍만만큼 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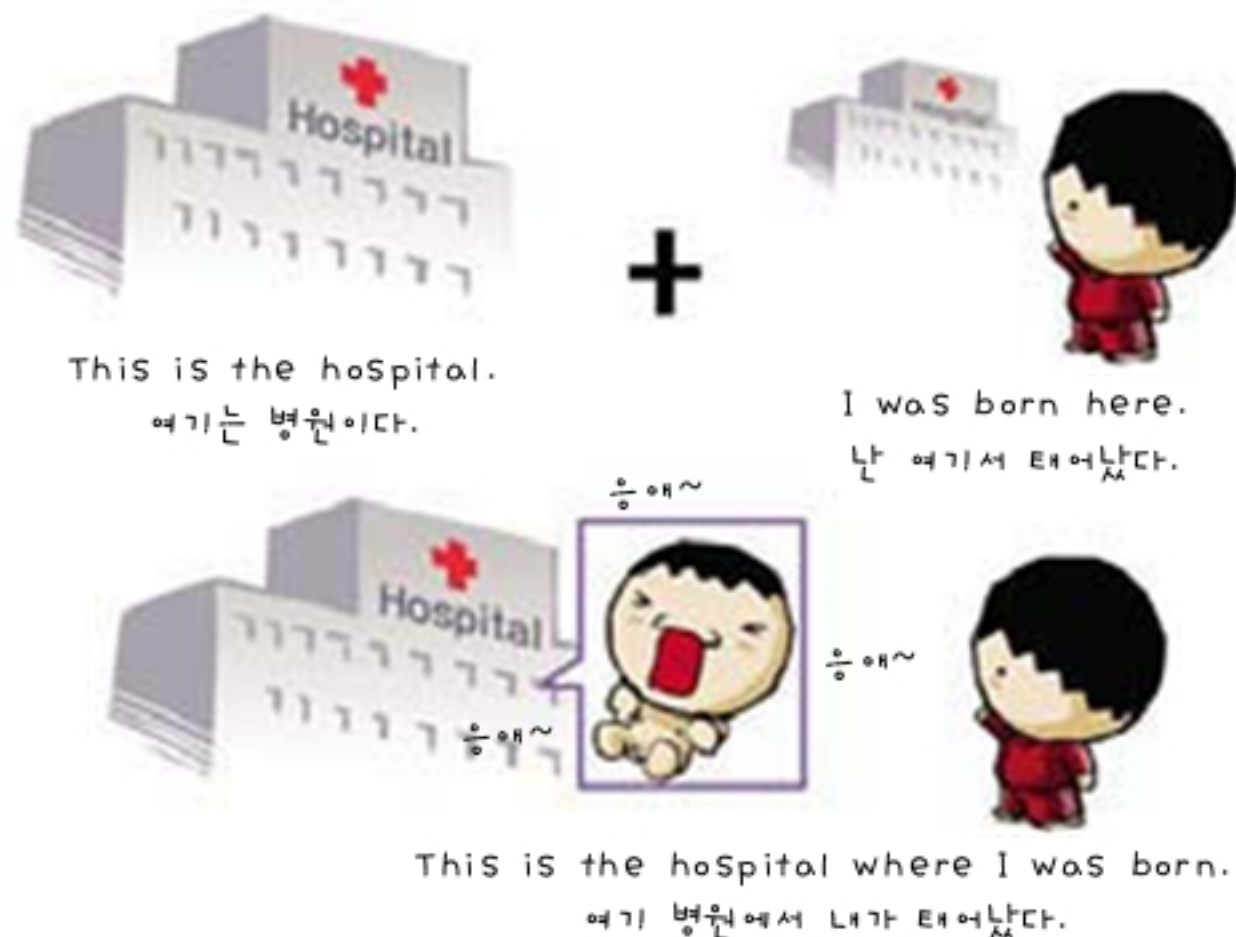




부사의 탈을 쓴 접속사, 관계부사

‘저기가 바로 그 식당이야.(That is the restaurant.)’와 ‘저 식당에서 작년에 내가 개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어.(I was food-poisoned eating dog over there.)’라는, 모 프랑스 여배우가 들으면 환장을 할 두 문장을 하나로 뭉쳐 보자. ‘저기 저 식당이 작년에 내가 개고기 먹고 식중독에 걸린 바로 그 식당이야.(That is the restaurant where I was food-poisoned eating dog.)’ 정도로 만들면 되겠지. 여기서 뒷문장이 꾸며 주는 단어, 즉 선행사는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restaurant이다. 아까 공부했던 관계대명사와 뭔가 차이를 못 느끼겠는가? 전혀 못 느끼겠다고? 이런... 감각도 무디긴...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꾸며 주는데 비해 **관계부사는 장소, 이유, 시간, 방법 등을 꾸며 준다.** 그리고 **장소는 where, 이유는 why, 시간은 when, 방법은 how**를 쓴다.



This is the hospital where I was born.

선행사

관계부사

여기는 내가 태어난 병원이야.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는 장소나 이유, 시간, 방법 등이 공통된 경우 관계부사를 이용해라. 방법, 이유, 장소, 시간에 따라 알맞은 관계부사를 사용하면 끝!



This is the bar. + I had a gang fight with school seniors.

= This is the bar **where** I had a gang fight with school seniors.

여기가 바로 학교 선배들이랑 패싸움을 한 술집이야.

I can never understand the reason. + People hate Hong Soo-A.

= I can never understand the reason **why** people hate Hong Soo-A.

난 말이야, 사람들이 홍수아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Do you remember the time? + You passed out at the bar.

= Do you remember the time **when** you passed out at the bar?

네가 술집에서 필름이 끊긴 시간을 기억하냐?

Can you teach me some skills. + I can hit on girls.

= Can you teach me some skills **how** I can hit on girls.

여자들에게 어떻게 작업 들어가야 하는지 비법 좀 가르쳐 줘.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헛소문인가요?



생략할 수 있다. 관계부사는 그 앞에 꾸밈을 받는 단어인 선행사가 너무나 뻔하다. 예를 들어 This is the place.가 나왔다면 뒤에는 뻔할 뻔자로 where 어찌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너무나 뻔한 관계부사인 where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로. why, when, how도 모두 생략 가능하다.

That's the reason. + We have to drink like there is no tomorrow.

=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drink like there is no tomorrow.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이 세상의 끝인 양 미친 듯이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야.

이것만은 꼭 ~
알아두셈!!



관계대명사 :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면 쉽고 세련되게 문장을 합칠 수 있다.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말이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that이나 it을 쓴다.

관계부사 :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장소나 시간, 이유, 방법일 때는 관계부사를 이용한다. 장소면 where, 이유면 why, 시간이면 when, 방법이면 how를 쓴다.

무작정 따라하면 귀와 입이 열린다!

미국 영어발음 무작정 따라하기(종합편)



원리를 알고 발음해야 귀가 뚫리지!

바로 통하는 발음의 원리를
한글표기로 쉽게 배우는
독자가 인정한 대한민국 발음 교과서

오경은·릭킴 지음 / 258면 / 17,800원 / 부록 :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오디오 CD 3장
저자가 발음요령을 알려주고 외국인 4명이 함께 읽었습니다.

영문법 무작정 따라하기



문법책이 너덜거릴 정도로 봤는데, 왜 맨날 헛갈리지?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문법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원리로 설명하니까 문법이 술술 풀립니다!
어려운 문법용어는 꼭 빼고
그림으로 차근차근 배우니까 문법이 쉬워집니다!

송연석 지음 / 344쪽 / 12,800원 / 특별 보너스 : 홈페이지에서 mp3 파일 제공

어학연수 현지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500만 원짜리 미국 어학연수가 부럽지 않다!

이 책 한 권이면 미국 한복판에 다녀온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
미국 20대가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길거리 영어부터 고급 영어까지!

라이언 강(Ryan Kang) 지음 / 312면 / 울컬러 / 19,800원
부록 : 리스닝 미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라이브 CD 2장

영작문 무작정 따라하기



영작을 잘하려면 문법을 다 알아야 한다?

영작에도 패턴이 있다.
30개 단어와 44개 구문, 27개 문법 사항만 알면 더 이상 영작이 두렵지 않다.
영화 속 명대사, 주옥같은 팝송 가사 등
어디서 들어본 듯한 101개의 유명한 문장으로 배우니까 영작이 즐거워진다.

박상준·정의석 지음 / 288면 / 12,000원



대한민국 최고 강사들의 살아 있는 영어 교과서

Try again!

중학교 교과서로 다시 시작하는 영어회화

유명 서점
베스트셀러



중학교 영어만 제대로 알아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세계 어느 나라 말이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는 1% 내외.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회화는 중학교 교과서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1교사》 담임교사 이근철이 가르쳐 주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회화 패턴 50!
이근철식 중학교 교과서라면 영어회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근철 지음 / 228면 / 19,800원
부록 : 150분 저자 직강 테이프 2개 + 180분 영어회화 훈련 테이프 2개

Try again!

중학교 교과서로 다시 시작하는 영어

3년 연속
베스트셀러



우리가 알아야 할 영어는 중학교에서 다 배웠다!

예문도 신선하고 강의도 머리에 쏙쏙 들어와 잊혀지지 않는 영문법 책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더라면 지금쯤 영어 도사가 됐을 텐데...
고맙다, 문단열식 중학교 교과서!

문단열 지음 / 208면 / 16,000원 / 부록 : 저자 강의 테이프 3개

Try again!

중학교 교과서로 다시 시작하는 영어 발음·듣기

듣기 분야
베스트셀러



엽기 발랄한 선킴의 중학교 교과서로 Try again!

"난 배부르다(I'm full)."고 말했는데 왜 날 바보(fool)로 여기지?
비슷한 소리라고 발음의 차이를 무시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닝 강사 선킴의 명쾌한 강의로
김치 발음이 즉각 미국식 발음으로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해 보세요.

선킴(Sun Kim) 지음 / 212면 / 19,800원 / 부록 : 저자 강의 테이프 4개

길벗 이지톡은 책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책까지 아무렇게나 빨리 만들 수는 없다는 고집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책보다는 오래 익힌 술이나 장맛이 밴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자는 길벗 이지톡이 왜 이렇게 책을 더디 만드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길벗 이지톡은 책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1초까지 아껴주는 길벗 이지톡의 책을 만나보십시오. 변함 없는 사랑을 바랄 뿐입니다.

길벗 이지톡 홈페이지 <http://www.gilbut.co.kr>

길벗 이지톡에서 발간한 책들을 맛보기로 열어 보시고, 자료실에서는 오디오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